

##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동향 분석\*

김동일(金東一)\*\* · 고은영(高恩英)\*\*\* · 정소라(鄭소라)\*\*\* · 이유리(李侑俐)\*\*\*  
이기정(李奇貞)\*\*\* · 박중규(朴重圭)\*\*\*\* · 김이내(金이내)\*\*\*\*\*

### 논문 요약

본 연구는 국내의 학습장애 연구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현재 국내 학습장애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발표된 연구 총 289편을 분석하였다. 국내 학습장애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에 관한 연구는 학습장애와 읽기장애의 특성, 특히 그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편중되어 이루어져왔다. 둘째,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있어 대부분의 연구들이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과 관련하여 이루어졌으며, 연구들은 주로 현재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있어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학습장애와 관련하여 중재 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세부 영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개별 중재에 대해 반복 연구가 부족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넷째, 이 밖에 학습장애와 관련한 연구로는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및 해외의 학습장애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이 있었다. 논의에서는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제언을 포함, 2년 단위로 한 연구 경향 분석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로 학습장애의 특성, 정의와 진단 및 판별, 중재 및 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반면,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경향이 완만한 하향세를 띄며, 생물학적 연관성이나 기타의 측면에 대한 관심이 차츰 생겨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장애의 하위 영역 중 비언어적 학습장애, 학습장애 공존장애, 학습장애 영재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수행될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 주요어 : 학습장애, 문헌연구, 중재

\* 이 논문은 2008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o. R01-2008-000-20528-0).

\*\*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 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 서울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전공,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 사업단』 참여 연구생, 교신저자  
(irene0141@snu.ac.kr)

## I. 서론

현재 정규학습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일군의 학생이 존재하고 있고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력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9). 이러한 특수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일군의 학생들에 대하여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인식한 것은 최근의 경향이다. 이에 관련된 연구는 19세기 초 뇌손상에 기반을 둔 두뇌연구를 시초로 하여, 임상 연구, 프로그램 개발연구가 이어진 후 1980년에서 현재까지 학습장애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오고 있다.

2001년도 국립특수교육원에 의해 행해진 특수교육요구아동의 출현율 조사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11세 초등학교 학령아동 중 학습장애 아동은 1.17%로 전체 특수교육 요구아동의 출현율(2.71%)의 43%정도에 해당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현재 학습장애는 특수교육의 가장 큰 영역으로, 2007년 장애아동교육법(IDEA)에 의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장애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40%로 가장 높다(<http://www.ideadata.org/PartBReport.asp>). 이렇듯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학습장애의 정의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Siegel, 1999), 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Kavale, 2005).

학습장애 아동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결함을 보이는 학습영역은 읽기, 쓰기, 철자, 산수 영역으로, 또래 정상아에 비해 학업적인 습득이 미비하고 전반적인 학습에 기초가 되는 학업영역에서 장애를 보임으로서 이로 인해 학년이 증가할수록 더 장애가 심화되어 학습에서의 저성취뿐 아니라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보일 수 있다. 즉, 학습장애 아동들은 자신감과 동기의 저하, 우울감, 불안감, 긴장감 등 정서적 요인을 비롯하여 주의산만하고 거둬지는 학습실패로 인한 행동문제를 보이는 등의 행동적인 요인이 학습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더욱이 또래, 교사, 부모들이 학습장애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서, 학습장애 아동들의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중되고 이에 따라 학습에서의 어려움이 증가되는 악순환이 거둬지고 있다. 따라서 학습장애에 대한 조기 개입과 체계적인 조력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학습장애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중재를 위한 진단 방안으로서, 최근 개인내 차 모형인 불일치 모형과 문제해결모형인 중재반응모형을 통합하여 학습장애를 진단하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2008년 한국학습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김동일 등에 의해 「한국형 학습장애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판별 모형」이 제안되었다. 이 모형은 학습장애를 진단, 판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학교 현장과 특수교육

지원센터 간의 연계적인 진단·판별 및 교육적 지원이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보여 주기 위하여 앞서 활용되었던 지능-성취불일치모형과 중재반응모형을 필요에 따라 재구조화시키는데 주력하여 개발되었다(김동일, 이기정, 김이내, 2008). 교육적 중재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장애의 진단·판별 모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기 시작한 바, 이 시점에서 학습장애의 정의, 진단·판별, 그리고 중재와 관련된 기존의 국내 연구들을 총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McNamara(2007)는 학습장애 분야가 정의에서의 변화, 판별 절차의 다양성, 교수적 방법이 유행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짐에 따라 꾸준히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논의하면서, 학습장애 학생을 다루는 교사는 현재의 실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오늘날의 학습장애의 주요 논의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함을 논하고 있다. 문헌연구는 연구자, 학자들에 의해 산출된 자료를 판별하고 평가하고 해석하기 위한 체계적, 명시적인 방법(Fink, 1994)으로 주제에 관한 상반되거나 모호한 결과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어, 이후 연구문제를 구체화하고,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 학습장애 관련 문헌 연구로는 1998년의 이은림의 연구를 필두로 하여 판별 및 진단(김자경, 2001; 김애화, 이동명, 2005; 안정애, 2006), 중재(김애화, 2006), 음운처리(서경희, 2001), 하위 유형의 분류 및 평가(이홍재, 김미라, 남기춘, 1998), 읽기와 음운 인식(이원령, 2003), 진단모형(김윤옥, 2006; 홍성두, 김동일, 2006; 김동일, 정광조, 2008) 등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중 전반적인 학습장애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이은림(1998)의 연구 이후 10년여 간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본 문헌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학습장애에 관한 국내 연구들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현재 국내 학습장애의 전반적인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향후 학습장애 영역의 체계화를 위해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II. 연구방법

### 1. 분석 대상 논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연구의 최근 10년간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의 포함준거와 제외준거의 기준에 따라 논문을 선정하였다. 논문 선정 포함준거로, 첫째, 주요 논문검색사이트(한국학술정보원(search.koreanstudies.net),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 누리미디어(www.dbpia.co.kr))에서 학위논문과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둘째, 학습장애 관련 논문만을 선정하였다. 검색을 실시할 때 “학습장애”, “경도장애”, “읽기장애”, “난독증”, “수학장애”, “산술장애”, “산수장

에”, “쓰기장애”, “쓰기표현장애”, “비언어적 학습장애”를 주제로 사용하여 키워드 분석을 사용하였다. 셋째, 최근 10년의 연구동향을 살피는 의미에서, 1999년에서 2008년 사이에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에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외준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학회지에 게재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제외하고,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진흥재단 등재 및 등재후보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만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같은 제목, 저자, 같은 연도에 발표된 논문은 학술지논문은 제외시키고 박사학위논문에만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의 국내 연구 동향이므로 이론문헌분석연구는 편수로만 포함시키고, 분석은 연구논문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선정된 논문 수는 총 289편이었다.

## 2. 분석 틀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289편의 논문에 대한 분석 틀은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구성된 매트릭스로, <표 1>과 같다. 논문 분석 틀은 첫째, Hooper와 Williams(2005)가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에 관한 문헌을 개관한 후 제시한 5개 항목의 분석 틀-정의, 발달 패턴, 생물학적 연관, 임상적 평가, 치료적 논의-과 김동일, 이대식, 신중호(2009)의 저서 『학습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에서 학습장애를 기술하기 위해 분류한 “학습장애의 개념적 이해”, “학습장애의 특징, 원인, 진단과 판별”, “신경생물학적 관련성”, “평가”, “각 영역에 대한 중재” 등을 기반으로 연구자들의 합의를 거쳐 5개의 영역-특성, 진단·판별 및 정의, 생물학적 연관, 중재-으로 수정 및 보완

<표 1> 논문 분석 틀

대상	특성	진단·판별 및 정의	중재· 치료	출현율 및 역학	생물학적 연관	기타 (인식)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실험 연구
학습장애	29	31	109		1	12	72	46	55
읽기	20	6	35		4		7	21	35
쓰기	1	1	11				1	1	10
수학	11	4	11			1	5	13	9
비언어적 학습장애	1	1	1				1		
학습장애 공존장애	5	2		1			2	6	
학습장애 영재	2	3	3				5		
계	69	48	170	1	5	13	93	87	109

하였다. 둘째, 연구자들이 수정 보완한 5개 항목을 가로축으로 하되, 학습장애의 하위 영역-읽기학습장애, 쓰기학습장애, 수학학습장애-을 세로축으로 추가하여 하나의 매트릭스를 구성하였고, 많은 국내 연구자들이 특정학습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학습장애” 항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 비언어적 학습장애, 학습장애 공존장애, 학습장애 영재를 학습장애의 하위 영역으로 포함시켰다. 셋째, 연구자들이 수정 및 보완한 분석틀의 5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논문들, 예를 들어,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조사와 해외 사례를 소개하는 논문들에 대해서 “기타” 항목으로 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 논문들을 문헌 연구, 조사 연구, 실험 연구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틀에 의해 검색된 논문을 분류하였는데, 한 논문에서 여러 하위 요소들을 다룬 경우(예를 들어, 한 논문에서 특성과 중재를 모두 다룬 경우), 중복 체크하였다. 이렇게 중복 체크된 수를 반영하면 총 306편이다.

### 3. 평정자간 신뢰도

연구에 사용된 자료 분석의 신뢰도는 1단계 분석에서 연구자들이 분석대상 논문 289편에 대해 개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한 후, 평정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분석자 간 일치한 수를 불일치한 수의 합으로 나누는 방법을 실시한 결과, 평균 87%의 신뢰도를 보였으며, 2단계 분석을 통해 분석자 간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재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을 도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특성

#### 1) 학습장애

최근 10년 동안 이루어진 학습장애의 특성에 관련한 국내 논문은 총 27편(9.3%)이 있었으며,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학습장애의 동기, 귀인, 낙관성향, 자아상 등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 6편(22%), 인지과정 및 메타인지와 같은 인지적 특성에 관한 논문 14편(51%), 사회적 능력, 사회적 행동 특성, 사회적 기술, 대인 관계 등의 사회적 특성에 관한 논문 6편(22%), 학습장애에서 나타나는 실행기능을 살펴 본 신경심리적 특성에 관한 논문 4편(15%), 그리고 생

&lt;표 2&gt; 학습장애의 특성

구분		관련 문헌
심리적 특성 (6편)	동기(2편)	김대성(1999), 허유성, 최지영(2008)
	귀인(2편)	김이선, 김윤옥(2003), 손상희(2003a)
	낙관성향(1편)	손상희(2003b)
	자아상(1편)	신성웅, 김봉수, 성덕규, 정영, 유희정, 조수철(2001)
인지적 특성 (14편)	어림능력(1편)	김자경, 김정은, 이미아(2006)
	자기발화수정능력(2편)	박소은, 김영태(2003), 강정숙, 김희규(2004)
	응집구조(3편)	박소은, 김영태(2003)*, 강정숙, 김희규(2004)*, 김희규, 강정숙(2005)
	이야기 문법(2편)	김희규, 강정숙(2005)*, 김고운, 안성우, 서유경(2007)
	발문형태에 따른 언어유형(1편)	최성규, 이정희(2003)
	은유능력(1편)	한태현, 신현기(2003)
	메타인지(1편)	김대성(1999)*
	인지과정(3편)	송동호, 류영민(2004), 변찬석, 이성환(2006), 김정은, 김자경, 정세영(2008)
사회적 특성(6편)	이대식(2000), 조용태(2000), 김자경(2002b), 김형일(2002), 이원령(2002), 조용태(2007)	
신경심리적 특성(4편)	신민섭, 김현미, 온싱글, 황준원, 김봉년, 조수철(2006), 입재령(2006), 송찬원, 김하경, 장희대(2008), 송찬원(2008)	
생물학적 특성(1편)	송동호, 류영민(2004)*	

\*표는 분류 과정 상 중복된 논문

물학적 특성에 관한 논문 1편(4%)을 찾을 수 있었으며, 이 가운데 5편의 논문이 분류 과정에서 중복되었다. 이상을 토대로 살펴본 학습장애의 특성과 관련한 연구 동향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학습장애 학생은 그 심리적 특성 가운데 학습동기에 있어 일반학생과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성과목표지향 동기와 과제회피 경향에 있어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을 보임이 밝혀졌다(허유성, 최지영, 2008). 또한 대개 내적 귀인성향을 갖는 일반아동에 반하여 강한 외적 귀인성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이선, 김윤옥, 2003; 손상희, 2003a), 전반적으로 낮은 낙관성향과 낮은 자아상을 가지며 우울과 불안을 많이 느끼는데, 이러한 심리적 특성들은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의욕을 낮추고 학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손상희, 2003b; 신성웅, 김봉수, 성덕규, 정영, 유희정, 조수철, 2001).

또한 인지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집 표지의 유형에서 지시·대응과 어휘적 결속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일반아동은 차이를 보이지 않고, 오류율에 있어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일반아동의 오류율이 더 낮게 나타났다(강정숙, 김희규, 2004; 김희규, 강정숙, 2005). 또한 응집표지에 대한 자기발화수정 능력에 있어 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총 수정 시도율은 높고, 수정 성공률은 낮게 나타났다(강정숙, 김희규, 2004; 박소은, 김영태, 2003). 그리고 이야기 문법의

하위구성요소별 사용정도에 있어 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모든 구성요소의 사용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김희규, 강정숙, 2005). 한편 김고운, 안성우, 서유경(2007)은 이야기 문법 구성요소의 산출률을 통해 이야기 구성능력을 살펴본 결과 학습장애 아동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보다는 낮으나 언어능력을 일치시킨 일반아동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러한 결함이 언어능력의 결함이기보다는 언어능력의 발달적 지연임을 제안한다.

학습장애의 인지적 특성에 관하여 Myers & Hammill(1990)은 학습장애에 있어 가장 많은 의견 일치를 보이는 두 가지 가정으로 학습장애가 이질적인 장애군이라는 가정과 학습에 기본이 되는 신경심리과정상의 기능장애가 학습에 있어 결손을 유발한다는 가정을 꼽았다.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 또한 학습장애가 인지과정에 결함을 보이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이에 있어 개인지능검사를 통한 많은 연구들은 학습장애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일치되는 결과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된다(송동호, 류영민, 2004; 변찬석, 이성환, 2006). 한편 변찬석, 이성환(2006)은 신경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학습장애의 주의 및 지각, 기억, 상위인지 등에서의 기능장애를 밝히고 있는 팔목할 만한 연구결과들을 들며 학습장애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신경심리학적 접근을 제안한다. 김정은 외(2008) 또한 이러한 접근을 통해 학습장애 아동들이 전체 인지기능과 계획기능, 동시처리, 주의집중, 순차처리에서 일반아동 보다 기능이 낮고, 동시처리와 순차처리 척도에서는 지적장애아동보다 낮은 기능을 나타내는 등의 특징을 가짐을 밝히고 있다.

또한 학습장애의 사회적 특성으로서 일반 집단 및 기타의 장애를 가진 집단과의 유의한 차이가 보고되었다. 첫째, 학습장애 아동들은 사회적 행동에 있어 유의미하게 낮은 동료수용, 사회적 문제, 가족과의 관계 부족, 대인관계 유지 등의 문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일, 2002). 특히 대인관계 기술에 관하여 이대식(2000)은 학습장애 아동들이 심각한 수준의 대인관계 기술상의 결함을 가짐을 지적한다. 둘째, 학습장애 아동은 사회적 기술에 있어 두드러지는 결함을 보인다. 예를 들어 학습장애 아동들은 의사소통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며, 사회 부적응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송동호, 류영민, 2004). 하지만 학습장애 아동의 사회적 기술 수준은 정인지체아의 그것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기술 수준의 하위영역을 살펴 보면 협력기술은 정인지체 아동과 학습장애 아동 사이의 차이가 없었고, 주장기술과 자기통제 기술에서 정인지체아 보다 학습장애아가 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다(조용태, 2000). 한편 김자경(2002b)은 학습장애의 이질성이 사회성 영역에서도 나타남을 밝히고 있다.

학습장애 아동의 실행기능에 관한 국내 연구는 학습장애 아동들에 나타나는 실행기능 상의 결함을 제안한다(송찬원, 김하경, 장희대, 2008; 송찬원, 2008). 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비교할 때 언어기능, 기억기능, 처리속도, 실행기능 등의 실행기능의 하위영역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나타냈으며, 특히 언어기능에 많은 차이를 보였다(송찬원 외, 2008). 또한 송찬원(2008)

은 일반아와 비교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실행기능 가운데 반응 억제 및 자기조절 능력, 인지적 유연성, 작업기억 능력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임을 제안한다.

학습장애의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점차 그와 관련된 주제들이 국내외 연구의 주요 분야로 대두됨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며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학습장애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신경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그 핵심원인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다(Shaywitz, B. A. 외, 2004).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학습장애의 생물학적 특성으로는 비정상 뇌파의 빈도가 높으며, 각성기제의 장애로 인하여 특정 피질 부위의 역기능이 초래되기도 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생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으므로, 학습장애는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이질적 집단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된다(송동호, 류영민, 2004).

## 2) 읽기장애

읽기장애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총 30편(10.3%)으로,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읽기장애의 특성

구분	관련 문헌	
인지적 특성 (24편)	음운처리 및 인식 (9편)	이혜숙, 박현숙(1999), 서경희(2001), 이원령(2002), 김미경(2003), 김미경, 서경희(2003a), 김미경, 서경희(2003b), 김미경, 서경희(2003c), 김미경, 윤치연, 안성우(2003), 이원령(2003),
	오류분석(3편)	김동일(2000), 이한규(2002), 이원령(2005),
	인지과정(3편)	박수진, 이춘재, 곽금주(2002), 김미경, 안성우(2005), 김미경, 안성우, 정운기(2005)
	단어재인(2편)	이혜숙, 박현숙(1999)*, 김미경, 서경희(2003c)*
	명명속도(4편)	신성웅(2001), 이원령(2002)*, 김미경, 윤치연, 안성우(2003)*, 이원령(2005)*
	기타(3편)	읽기유창성-김미경, 서경희(2003a) 타이밍 조절-신성웅(2003) 어휘처리양상-조경덕, 정재범, 남기춘(2002)
신경심리적 특성 (2편)	송종용(1999), 김미경, 서경희(2003b)	
생물학적 특성(3편)	이병화, 이경숙, 윤수진, 이영미, 김향희, 권재철, 강수진, 나덕렬(2002), 장영건(2005), 정희정(2006), 안성우, 김학진, 신미성, 서유경, 박진영, 박원경(2008)	

\*표는 분류 과정 상 중복된 논문



읽기장애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가운데 과반수이상(80%, 24편)의 논문들이 읽기장애의 인지적 특성을 다루며, 이 밖에 신경심리적 특성(2편, 7%)과 생물학적 특성(4편, 13%)을 다루고 있다. 한편 분류 과정에서 중복된 논문은 5편이었다.

분석 결과 읽기장애의 인지적 특성 가운데 음운처리 및 인식, 오류분석, 인지과정, 단어재인, 명명속도, 읽기유창성, 타이밍 조절, 어휘처리 양상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음운 처리란 구어와 문어의 처리과정에서 음운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음운 처리 과정은 음운인식과 음운 재부호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Torgesen & Burgess, 1998). 또한 음운 인식이란 구어에서 사용되는 낱말 속에 들어 있는 소리의 여러 단위들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능력을 가리킨다(Chard & Dickson, 1999). 읽기장애의 음운처리 및 인식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읽기장애아들이 음운처리 및 인식에 있어 두드러지는 결함을 보임을 밝힌다. 특히 음운처리와 읽기재인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음운처리 및 음운인식 능력에서의 결함이 읽기재인 능력에서의 결함과 높은 상관을 가지며, 음운처리과정 및 음운인식이 읽기재인에 대한 유의한 예측변인임을 제안한다(이혜숙, 박현숙, 1999, 김미경, 서경희, 2003c). 또한 김미경, 서경희(2003a)는 음운인식 능력이 읽기 유창성을 설명하는 주요 변인임을 지적한다.

읽기장애에서 나타나는 읽기 오류를 분석한 결과 읽기장애아는 일반아동에 비하여 모든 읽기 오류의 유형에서 높은 오류율을 보였고, 특히 전체 문장의 의미에 어긋나지만 단어 수준에서 의미를 갖는 오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읽기장애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유지하지 못하고 부분적인 의미에만 집착함을 알 수 있다(이한규, 2002).

한편 읽기장애아의 인지 특성에 관한 연구들은 읽기장애아들이 나타내는 인지적 특성에 있어 일반아동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박수진, 이춘재, 광금주(2002)는 K-WISC-III를 실시한 결과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밝혔다. 또한 김미경과 그의 동료들이 수행한 일련의 연구들(김미경 외, 2005; 김미경, 안성우, 2005)은 PASS 모델의 관점에서 개발된 인지사정체계의 하위 검사를 통해 읽기장애아의 인지과정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단어 재인 능력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일반아동의 경우 동시적 처리능력이 나타났으나 읽기장애아에게서는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고, 독해 및 읽기이해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일반아동은 동시적 처리능력이 나타났으나 읽기장애의 경우 요인이 발견되지 않음을 밝혔다.

읽기장애아들은 명명속도에 있어서도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낮은 능력을 가짐이 드러났는데(김미경 외, 2003; 신성웅, 2001; 이원령, 2002b; 이원령, 2005b), 주목할 점으로는 신성웅(2001)이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 집단과 읽기장애집단의 명명속도를 비교한 결과 읽기장애 집단이 더욱 낮은 점수를 나타냄을 밝힌 것을 들 수 있다.

읽기장애의 생물학적 특성을 알아보려고 fMRI를 활용한 읽기 과제 시 뇌 활성화 영역을 살펴본 안성우 외(2008)는 단어 읽기 과제 시 일반 아동은 좌반구 중측두엽이, 읽기장애아동은 좌

우반구의 하후두회와 방추상회가 활성화되며, 비단어 읽기 과제 시 일반아동은 좌반구 하측두회와 중전두회 그리고 우반구의 상전두회와 중심저회가, 읽기장애아동은 좌우반구의 배측 시각경로인 lingual 영역이 활성화됨을 밝히면서, 읽기장애아동이 단어 읽기를 할 때 주로 시각적 처리를 통해 기억에 의존하여 통문자로 단어를 읽음을 제안한다. 장영건(2005)도 난독증 집단을 대상으로 fMRI를 활용한 읽기 작용에 대한 뇌 활성화 영역을 비교한 결과 일반집단은 좌반구 후두엽의 두 영역을, 난독증 집단은 좌반구의 브로카 영역과 우반구의 전두엽과 후두엽을 활성화함을 밝혔다. 한편 읽기장애에서는 측두평면의 크기가 좌측 대뇌에 비하여 우측 대뇌가 작을 뿐 아니라 측두평면의 정상적인 대칭성이 좌측 대뇌에 비하여 우측 대뇌에서 보다 뚜렷한 소견을 나타낸다. 또한 언어적 작업 수행 중 왼쪽 측두엽의 혈류 흐름이 정상과 다름이 보고되었으며(송동호, 류영민, 2004), 우측 측두엽, 후두엽 및 두정엽의 손상으로 무시난독증을 보이는 대상에게 가로읽기와 세로읽기 과제를 제시한 결과 세로읽기에 비해 가로읽기에서 오류의 빈도가 높음이 발견되었다. 이는 좌반구가 우측공간에 대한 주의만을 담당하는데 반하여 우반구는 좌우측 공간 모두의 주의를 담당함에 따라 좌우탐색이 더 요구되는 가로읽기에서 오류빈도가 높음을 보여준다(이병화, 이경숙, 윤수진, 2002).

### 3) 쓰기장애

한편 쓰기장애 아동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는 신성웅, 조수철(2001)이 쓰기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쓰기 특성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 1편의 논문을 찾을 수 있었다. 연구 결과 쓰기장애 아동은 정상아동과 비교하여 전반적으로 글씨가 크며, 글자 사이의 간격이 더 넓고, 단어 사이의 간격은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 4) 수학학습장애

수학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논문은 총 10편(3.4%)으로,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4>와 같다.

수학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논문 가운데 약 60%(6편)의 논문이 수학학습장애 학생의 연산과 관련하여 연산능력 및 전략과 연산오류를 분석하였고, 문장제 문제 해결 능력에 관한 2편(20%)의 논문 및 작동기억과 인지적 특성에 관한 각 1편(10%)의 논문이 있었다.

수학학습장애 아동은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연산능력의 발달에 있어 초기 값에 따라 다른 성장률을 보이는데, 일반아동에 비하여 초기 값과 성장률 모두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이태수, 2006; 이태수, 최종근, 2005). 또한 연산전략 사용에 있어 동일한 생활연령 집단이 상위

&lt;표 4&gt; 수학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논문

구분		관련 문헌
연산 (6편)	연산능력 및 전략 (4편)	김자경, 김기주(2005), 이태수, 최종근(2005), 이태수(2006), 김자경, 정남용, 김기주, 임은영(2007)
	연산오류 (2편)	전영례, 안성우, 김미경(2003), 이병혁, 신현기(2004), 우정한, 김영걸, 신재훈(2007)
작동기억(1편)		김성만(2008)
인지적 특성(1편)		이대식, 최종근, 전윤희, 김연진(2007)
문장제 문제 해결(2편)		이태수, 홍성두(2007), 이태수(2008)

전략인 회상 전략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달리 수학학습장애 집단은 회상전략과 함께 하위수준의 전략인 수 세기와 수 가르기 전략을 함께 사용하며, 동일한 수학능력을 가진 일반집단보다 회상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자경 외, 2007). 그리고 단순 연산능력과 암산능력은 일반아동 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전략의 수와 빈도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김자경, 김기주, 2005). 또한 연산 오류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오류유형을 “잘못된 연산, 불완전한 연산, 자리값 오류, 결합 있는 알고리즘, 계산상의 오류, 임의의 오류, 무응답”으로 분류하며 이에 더하여 “숫자쓰기 오류, 계산 순서 오류(전영례, 안성우, 김미경, 2003)”와, “받아올림과 받아내림 오류, 자리 값(우정한, 김영걸, 신재훈, 2007)”의 유형을 각각 분류하였다. 전영례 외(2003)는 수학학습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에게서 나타나는 연산 오류를 분석한 결과 수학학습장애 아동은 자리 값 오류, 명백한 계산 오류, 계산순서 오류, 임의의 답, 무응답, 결합 있는 알고리즘에서 오류를 많이 보이며, 일반아동이 자리 값 오류를 크게 보이지 않으면서 명백한 계산 오류만 많이 보이거나 임의의 답 오류를 거의 보이지 않고 결합 있는 알고리즘 오류만 많이 보이는 반면 두 오류를 모두 보이는 수학학습장애 아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정한 외(2007)는 연산 영역을 중심으로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연산 오류를 분석하였는데 나눗셈 영역에서 가장 높은 오류가 나타나며, 각 영역별 오류로는 덧셈 영역에서는 계산상 오류, 뺄셈 영역에서는 받아들림/내림 오류, 곱셈 영역은 결합이 있는 알고리즘 오류, 나눗셈 영역에서는 무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을 밝혔다.

이대식 외(2007)는 수학학습장애를 포함한 수학 기초학습부진학생 집단의 수학 기본학습기능, 정보처리속도, 작업 기억, 수학성취도, 지능 등을 비교한 결과 모든 변인에서 기초학습부진 집단이 일반아동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평균을 나타내며, 지능이 높은 집단이 작업 기억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장제 문제해결능력에 관한 이태수와 그의 동료의 연구들(이태수, 홍성두, 2007; 이태수, 2008)은 학습장애 아동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에 있어 수행수준과 진전도를 분석하였다. 이태수, 홍성두(2007)는 일반아동과 저성취아동 그리고 학습장애 아동의 중재반응 특성을 비교 분

석한 결과 학습장애 아동이 다른 두 집단보다 낮은 수행수준과 느린 진전도라는 이중불일치의 문제를 가짐을 제안하였고, 이태수(2008)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의 학습장애 아동의 문장제 문제 해결능력을 비교한 결과 일반학급의 학습장애 아동이 높은 초기수행수준을 보이나 진전도는 특수학급의 학습장애 아동에서 높게 나타남을 밝혔다.

김성만(2008)은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작동기억과 그에 따른 수학적 능력을 읽기·수학 학습장애 공존장애 집단, 일반아동집단 등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세 집단의 중심 실행 능력, 언어적 작동 기억 능력은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히 읽기·수학학습장애 공존장애 집단의 작동기억이 수학학습장애 보다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편 수학학습장애 집단 가운데에서도 작동기억 능력이 높은 집단이 보다 두 자리 수 덧셈과 뺄셈 문제 해결에 있어 고등 개념적 구조/방법, 표상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리 값 이해 및 적용 능력에 있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5) 학습장애 공존장애 및 학습장애 영재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와 학습장애 영재에 관한 논문은 총 7편(2.4%)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5>와 같다.

학습장애 아동은 정서나 행동 문제 또는 공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나타난다(Falik, L. H., 1995).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또래관계의 어려움, 가족 간의 갈등, 낮은 자존감, 학교거부, 품행장애, ADHD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Hinshaw, 1992). 특히 ADHD의 경우 종종 학습장애와 중복되어 나타나는데, Riccio 외(1994)에 따르면 학습장애로 판별된 학생들 가운데 약 20%가 ADHD를 지닌 것으로 진단되고 있다. 이에 학습장애와 ADHD 공존장애 집단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김동일 외, 2008) 이와 관련한 연구는 <표 5>와 같이 6편(청각장애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 2편,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 4편)으로 매우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학습장애 영재는 무한한 성취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므로 단순 지능검사만으로 분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보다 저학년의 영재 아동에게서 일반적으로 분명하게 눈에 띄지 않는 학습장애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함(Taylor, 1984)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 1편(서우경,

<표 5> 학습장애 공존장애 및 영재의 특성에 관한 논문

구분	관련 문헌
학습장애 공존장애(6편)	김용희, 신민섭, 조수철(2002), 이종범, 박순재, 정성덕, 김진성, 서완석, 배대석(2002), 김수진(2003), 이경희, 신민섭, 김봉년, 조수철(2003), 김수진(2006), 김동일, 김이내, 이기정, 정소라, 김봉년, 고은영(2008)
학습장애 영재(1편)	서우경(2005)

2005)의 논문만을 찾을 수 있었다. 학습장애 공존장애와 학습장애 영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학습장애와 ADHD 공존장애 집단의 기억 수행을 비교한 결과 단기 기억과 재인에서의 수행을 제외한 전체기억, 지연기억, 언어기억, 시각기억 검사에서 학습장애와 ADHD 공존장애 집단, 학습장애 집단, ADHD 집단의 순으로 저조한 수행이 나타났다(김용희 외, 2002). 또한 공존장애 집단의 경우 ADHD에서 나타나는 임상적 특성과 실행기능의 저하와 더불어 학습장애의 동반으로 인하여 언어와 수학에 어려움을 나타내며, 학습장애 동반으로 인하여 실행기능이 더 저하되지는 않지만 사회관계 등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종범 외, 2002). 또한 청각적 주의력에 있어 읽기 장애와 ADHD를 함께 지닌 집단이 ADHD 집단 보다 어려움을 가지며, 음소 변별 과제에서 ADHD와 다른 수행 패턴을 보였다. 한편 김수진의 연구들(2003, 2006)은 청각장애와 학습장애의 공존 양상에 관하여 분석하고 있다.

학습장애 영재의 특성에 관하여 서우경(2004)은 학습장애 영재아를 포함한 미성취 영재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51편의 국외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성취 영재아의 11개 관련 변인인 자아개념, 통제소재, 불안·우울, 학습태도, 부모지지, 부모태도, 가족환경, 또래지지, 교사지지, 교사태도, 학교환경 변인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 심리 변인군, 부모·가족 변인군, 학교·교사 변인군 등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또래관계 변인군과 학교·교사 변인군은 비교적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또한 11개의 관련 변인 가운데 불안·우울 변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개념과 학습태도 변인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학교환경 변인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밝혔다.

## 2. 정의, 진단 및 판별

### 1) 학습장애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관한 논문은 총 29편(9.5%)으로 이 가운데 학습장애의 정의에 관한 논문은 5편(17%)이 있었고, 진단 및 판별에 관한 논문은 24편(83%)이 있었다.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학습장애는 그 이질성으로 인하여 정의에 있어 끝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Bursuck & Epstein, 1987, 신종호, 1999). 1960년대 Samuel Kirk이 시카고협회에서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라는 용어를 처음 거론한 이후로 “학습장애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김윤옥, 2001). 학습장애의 보편성, 특수성, 상대성의 관점에서 그 정체성이

확립될 필요가 있으며(정대영, 2005), 이에 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의 문제에 있어 그 정의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연구에 나타난 학습장애의 정의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Kirk(1962)이 초기에 제시한 문제영역, 평균 이하의 성취, 개인 내차, 과정결함, 이질성, 중추신경계 기능장애, 배제요소 등에 더하여 불일치, 일생문제 사회성, 중복장애 등이 나타나있으며, 이와 더불어 분류 유형은 크게 기본적 심리과정 및 발달적 학습장애, 기초학습 및 교과학습장애, 사회성 학습장애로 나뉜다(정대영, 2005). 정대영은 일련의 연구(2002, 2005)를 통하여 학습장애가 갖는 이러한 이질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문화와 풍토에 맞는 학습장애 정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 모형에 관한 연구는 크게 불일치 모델, 중재반응모델, 그리고 이러한 모델의 문제점 및 그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로 나뉜다. 대표적인 불일치 모델로는 지능-성취 불일치 모델, 저성취 모델, 이중 불일치 모델이 있으며 각각의 모델은 측정학적 정확성, 현실 적용 가능성, 평가 도구의 적합성 등의 문제에 있어 장단점을 갖는다(김동일, 홍성두, 2005). 이에 불일치 모델에 있어 IQ 검사 사용의 적합성(이대식, 2001; 허승준, 2005), 학습장애 진단에 있어 낮은 일관성(김동일, 홍성두, 2006; 허승준, 2005) 등이 지적되며 이러한 한계에 따라 그 대안적 접근으로서 중재반응 모델이 제시되었다(김동일, 홍성두, 2006; 이대식, 2001). 하지만 중재반응모델 또한 실패하기를 기다리는(wait-to-fail) 중재가 될 수 있으며, 타당한 중재

<표 6> 학습장애의 정의 및 판별

구분		관련 문헌	
학습장애의 정의(5편)		박현숙(1999), 신종호(1999), 정대영(2002), 강종구, 김정현, Dermot Foley(2004), 정대영(2005)	
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24편)	판별모형(8편)	불일치모형(5편)	김동일, 홍성두(2005), 김자경(2005), 김동일, 홍성두(2006), 이대식(2001), 홍성두, 김동일(2006)
		RTI(1편)	김윤옥(2006)
		기타(2편)	허승준(2005), 김동일, 정광조(2008)
	조기판별(4편)	김자경(2002), 신종호(2002), 고혜정(2003), 김동일, 최종근(2004)	
	교사판별(4편)	변찬석(2002), 김윤옥, 봉원용(2004), 김동일, 홍성두(2008), 김동일, 홍성두, 이기정(2008)	
	위험학생 선별(2편)	김애화, 신현기, 한경근, 황민아, 이준석, 학변(2006), 김애화, 신현기, 이준석, 황민아, 한경근, 박현(2008)	
	진단도구(2편)	문태형(1999), 이유리, 노주선, 김근향, 김지혜(2000)	
	정신지체 및 학습부진과의 변별(3편)	장은진, 강민아, 정철호(2001), 강옥려(2002), 김윤옥(2008)	
판별의 문제(1편)	김자경(2001b)		

의 실행에 어려움이 따르고, 중재에 낮은 반응을 보이게 되는 기타의 요인을 가진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구분해내지 못하며, 현재의 진단 절차 개선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 등에 있어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된다(김윤옥, 2006; 허승준, 2005).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능력-성취 불일치, 기초 기능영역의 심각한 결함, 전략 사용과 학습속도 측정에 기초한 효율적 학습능력의 결함, 심리적 처리의 결함, 배제요인의 Kavale & Forness(2000)의 다섯 수준의 위계적 모델, 그리고 이 모형이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이론적 심리측정적 접근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Flanagna 외(2002)의 네 수준의 학습장애 진단 틀, 그리고 학습에 필요한 능력의 발달 정도를 또래와 비교하고 있는 김동일, 이대식, 신중호(2009)의 4단계 학습장애 선별 및 판정 단계별 기준이 제기되어 왔으며(허승준, 2005), 한편 김동일, 정광조(2008)는 이 불일치모델과 중재반응모델의 통합모형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며 각 모형의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학습장애 아동의 조기판별과 관련한 연구들은 조기판별을 통한 예방적 교육 실시 가능성과 아울러 중재 효과의 극대화를 근거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때 조기판별에 있어 평가해야 할 영역으로는 인지 발달, 신체적 발달, 의사소통 발달, 사회·정서적 발달, 적용기술 및 자조기술 발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영역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전통적인 표준화된 발달검사도구들은 그 타당성에 있어 문제점 및 적합한 검사도구의 부재가 지적되고 있다(고혜정, 2003; 김동일, 최종근, 2004; 신중호, 2002).

이에 타당한 조기판별 도구로서 김동일, 최종근(2004)은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조기 문해 검사인 메트로폴리탄 준비도 검사(MRT: Metropolitan Readiness Test)와 DIBIELS(Dynamic Indicators of Basic Early Literacy Skills)를 소개하며 이의 국내 활용방안을 제안한다. 한편 신중호(2002)는 학습장애 조기 선별을 위하여 인지판단 그림검사 개발을 위한 타당도 연구를 실시하였고, 연구 결과 인지판단 그림검사가 정보처리와 관련하여 학습장애 아동을 평가하는 타당한 검사도구가 될 수 있음을 밝혔다.

김애화, 이동명(2005)이 학습장애 학생의 판별과 관련한 국내 논문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논문에서 교사가 학습장애 위험학생을 선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학습장애 판별에 있어 교사 판단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학습장애 판별에 있어 교사 판단 기반 학습장애 예측의 가장 효과적인 핵심변인은 읽기능력, 언어이해능력, 주의집중력, 쓰기능력이며, 특히 가장 효과적인 핵심변인은 읽기와 같은 학업성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홍성두, 이기정, 2008). 또한 교사들은 아동관찰이 교육적 결정에 있어 가장 유용한 사정방법이며, 사정절차에 있어 교사 자신을 유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변찬석, 2002). 하지만 실제 학습장애 진단에 있어 교사의 임상적 판단과 실제 간에는 매우 낮은 일치도가 나타났으며(김동일, 홍성두, 2008), 실제 임상적 판단 단계에서 대다수 교사들이 임상적 판단에 학문적 정의를 사용하

지 않고 있으며, 판별 절차의 일부를 생략하거나 축소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윤옥, 봉원용, 2004).

이에 타당한 검사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김애화와 그의 동료들의 일련의 연구(김애화 외, 2006; 김애화 외, 2008)는 학습장애 위험학생 선별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을 제안하며, 이유리 외(2000)은 학습장애 진단을 위하여 학습 성취도 검사 가운데 쓰기 검사 개발을 연구하였고, 문태형(1999)은 학습장애 진단 준거로서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K-WPPSI)의 제 3요인으로서 탈산만성 요인의 추출가능성과 적합성을 제안한다.

정신지체 아동과 학습장애 아동을 변별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동인성검사(KPI-C)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시도가 있었는데, 연구 결과 KPI-C는 일차적으로 정신지체나 학습장애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해주나 이 둘의 변별 도구로서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장은진 외, 2001). 한편 김윤옥(2008)은 자작 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말하기, 독해, 쓰기, 전략적 사고 영역에서 정신지체 학생이 학습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임이 밝혔다. 또한 강옥려(2002)는 학습장애의 특성과 원인 등을 토대로 학습장애와 학습부진의 차이를 제안한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학습장애의 판별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김자경(2001b)은 학습장애 관련논문을 대상으로 그 판별절차 및 방법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논문에서 학습장애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판별과정을 실시하였으나 어떠한 정의를 기준으로 그 판별과정을 결정하였는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또한 학습장애의 판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여겨지는 IQ 수준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합한 판별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은 논문도 상당수 있음을 지적한다.

## 2) 읽기·수학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영재

읽기·수학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영재에 대한 진단 및 판별과 관련한 연구는 총 12편(3.9%)으로,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7>과 같다.

읽기 및 수학학습장애와 학습장애영재의 진단 및 판별에 관한 연구는 각각 읽기장애 5편

<표 7> 읽기·수학학습장애 및 학습장애 영재의 진단 및 판별

구분	관련 문헌
읽기장애의 진단 및 판별 (5편)	박현숙(1999b), 박수진, 이춘재, 곽금주(2002), 신성웅, 조수철, 이정범, 정동선(2003), 안정애(2006), 박승환, 장영건(2007)
수학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 (4편)	김애화(2006a), 홍성두, 정은주, 김동일(2006), 이대식(2007), 김용욱, 우정환, 이성환, 안정애(2008)
학습장애 영재의 판별(2편)	문태형(2003), 이신동(2006)
공존집단의 판별(1편)	전선영, 신민섭, 조수철, 김봉년(2003)



(41%), 수학학습장애 4편(33%), 학습장애 영재 2편(16%), 공존집단의 판별은 1편(8%)으로 비교적 그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읽기장애의 진단 및 판별에 있어 평가해야 할 하위능력으로는 읽기 재인 하위능력으로 음운론적 인식, 음성학적 지식, 일견단어, 문맥상의 단서사용, 구조적 분석이 그리고 읽기 이해력 하위능력으로는 어휘의미 알기, 세부사항 회상하기, 중심내용 파악하기, 이야기 순서 알기, 인과관계 파악하기, 추론하기, 예측하기, 평가/판단하기, 감상하기, 문제 해결·적용하기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하위 능력에 대하여 교사가 현장에서 주로 활용하는 비공식적 읽기 평가는 이러한 하위 능력에 대하여 양적 평가 및 질적 평가, 어휘수준 및 단락 수준의 평가 등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박현숙, 1999b). 읽기장애의 진단 및 판별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분석한 안정애(2006)는 과반수 이상의 논문이 읽기장애의 조작적 정의로서 읽기성취불일치, 지능, 배제요인을 들며, 선별정보에 대하여 제시하고, 국어과 학업 성취도를 바탕으로 1단계 선별을 하고 이 때 선별주체는 주로 담임교사임을 밝혔다.

또한 읽기장애의 검사 도구와 관련하여 한국판 웨슬러 아동지능검사(K-WISC-III)에 나타나는 읽기장애아의 인지 특성을 밝힌 박수진 외(2002)는 K-WISC-III에서 읽기장애아들의 지능은 평균적으로 90이상이며, 언어성 지능이 동작성 지능보다 낮음을 밝혔다. 또한 13개의 소검사 환산점수 중 상식과 공통성, 숫자 소검사에서 정상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낮은 점수를, 그리고 동형찾기 소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며, 4요인 지표 가운데 언어적 이해(VC), 주의집중(FD) 요인지표는 읽기장애 집단이 정상집단에 비해 점수가 유의미하게 낮고, 처리속도 지표(PS)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성용 외(2003)는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별검사의 표준화 방안을 연구하였으며, 박승환, 장영건(2007)은 시각적 정보처리 결함을 가진 난독증 학습장애 선별을 위한 색 오버레이 검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수학학습장애의 진단 및 판별과 관련하여 김용욱 외(2008)는 수학 영역 중재반응모델과 관련한 연구 6편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중재반응모델은 주로 전학급 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 2학년에 적용되고 있으며, 2~3개의 tier를 주로 채택하고 있고, 측정도구로는 주로 CBM이 사용되고 있으며 6편 가운데 1편에서는 중재반응모델이 학습장애 출현율을 줄여주는 엄격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을 밝혔다.

홍성두, 정은주, 김동일(2006)과 김애화(2006a)는 수학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에 있어서 CBM의 이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홍성두 외(2006)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수학 CBM의 교수적 장점 및 신뢰도와 타당도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수학 CBM이 수학학습장애 진단에 있어 측정학적 적합성과 타당도를 가지며 수학학습장애 학생들의 교육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처치 타당도의 개념이 학습장애 진단에 도입되면서 이중 불일치(Dual discrepancy)가

학습장애 진단에 있어 중요시됨에 따라 더욱 CBM이 보다 핵심적인 진단도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애화(2006)는 수학학습장애 위험학생 조기선별검사 개발을 위하여 CBM을 활용한 수감각검사를 개발하였다. 선행문헌 분석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개발된 조기선별검사는 뛰어 세기, 거꾸로 세기, 수읽기, 수의미, 수량변별, 빠진 수 넣기, 덧셈구구, 뺄셈구구, 숫자 바로 따라하기, 숫자 거꾸로 따라하기, 색깔 규칙찾기, 숫자 규칙찾기의 12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으며,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1학년생 198명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밝혔다.

학습장애 영재의 판별과정에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능검사 도구는 Wechsler 지능검사이다. 그러나 Wechsler 지능검사의 척도지능지수가 지나는 한계로 인하여 개인의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에 어려움이 있으며, 하위 영역의 양상을 파악하기 용이한 프로파일 분석이 그 대안으로 제시된다(문태형, 2003).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은 프로파일분석을 비롯한 지능검사를 이용한 학습장애 영재의 판별이 많은 문제를 지님을 지적하면서 학습장애 영재의 판별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Brody & Mills, 1997; McCoach, Kehle, Bray, & Siegle, 2001; 이신동, 2006). 이에 이신동(2006)은 양면 특수아를 평가하는 미국의 전문기관인 Gifted Development Center가 제시한 학습장애 영재의 5가지 유형(감각통합 장애를 가진 영재,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영재, 청각 혹은 시각 장애를 가진 영재, 난독증/읽기학습장애를 가진 영재, 공간지각 장애/비언어 학습장애를 가진 영재)을 제시하고 이들의 판별과 관련하여 능력검사 보다는 성취검사를 활용하는 영재성 중심 판별 전략, 표준적 관점보다는 학생의 약점과 장애특성에 주목하는 장애중심 판별 전략, 그리고 많은 학습장애 영재에서 쓰기장애가 나타난다는 사실에 근거한 쓰기장애 영재 판별 전략의 세 전략을 제시한다.

전선영 외(2003)는 K-ABC와 K-LDES를 통한 학습장애와 ADHD 공존집단의 진단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K-ABC의 습득도 척도와 문장해독에서 공존집단이 낮은 점수를 보이고 K-LDES에서 말하기와 수학을 제외한 모든 척도에서 공존집단이 유의하게 낮은 수행을 보임을 밝히며, 공존집단 진단에 있어 K-ABC와 K-LDES를 유용한 진단 도구로 제안한다.

### 3. 학습장애의 중재

#### 1) 읽기장애

읽기장애는 학습장애 영역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장애유형으로서, 연구자들은 학습장애 학생들 중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70%에서 90%까지 다양하게 보고하고 있다(강위영, 정대영, 2001). 읽기 기능은 중요한 도구능력으로서 다른 교과학습에

도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에서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읽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교육적 중재가 조기에 제공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읽기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전략에 대한 국내의 연구 흐름을 정리해봄으로써, 효과적인 교육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중재연구를 분석한 김애화(2006b)의 연구에서는 읽기교수의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읽기이해, 음운인식 및 글자해독, 어휘, 읽기 유창성, 그리고 다요소 읽기교수로 분류하여 총 19편의 연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런 읽기 중재유형 외 읽기에 영향을 미치는 중재유형으로 교수집단, 컴퓨터 활용, 기타 중재를 들어 5편의 연구를 읽기 중재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최근 강종구, 최성규, 허명진(2007)은 읽기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도전략을 Lerner(2003)가 제시한 여섯 가지 전략들 가운데, 네 가지 지도전략, 즉 단어인식 향상에 관한 지도전략, 유창성 향상에 관한 지도전략, 읽기이해를 위한 지도전략, 그리고 컴퓨터와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지도전략으로 나누어 2000년부터 2006년까지의 한국의 사례연구들을 정리한 바 있다. 여기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 국내의 읽기 중재 관련 문헌을 망라하여 종속변인을 기준으로 단어인식능력, 읽기 유창성, 읽기 이해력, 어휘력,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특히 2006년 이후의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 보고자 한다.

(1) 단어인식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학습장애 학생들의 단어인식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는 총 23편이었다. 이를 중재 유형별로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단어인식능력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음운인식훈련	김영우, 서경희(2002), 노선옥, 전현선(2003), 송지연, 박현숙(2003), 이원령, 이상복(2003), 안성우(2005), 이지영, 김정미(2006), 진점임, 안성우, 서유경, 최상배(2006), 김길순(2008a, 2008b), 변찬석, 김길순(2008)	
PREP	여광응, 이점조(2001), 장대식, 안성우, 정운기, 최은영, 김미경(2005), 이점조, 여광응(2002), 안성우(2005), 최정미, 강병주, 김성화, 변찬석(2007), 최정미(2008)	
컴퓨터 활용 중재	한경임, 전희(2002), 최성규, 송재웅(2003)	
혼합중재	이지영, 김정미(2006), 추은정, 박종규, 윤화영, 이영호(2007), 조주현(2008)	
기타	직접교수	정광조, 김동일(2007)
	다중지능 활용 교수	김주경,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2006)
	삽화이용 대체사고전략	이호신(2002)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최정미, 김성화, 강병주, 변찬석(2006)

단어인식(word recognition)은 문자에 대한 해독(decoding)을 의미하며, 형태(configuration), 음소(phonics), 음절(syllables), 문맥(context) 분석, 그리고 반복적 경험을 통한 일견(一見) 읽기(sight reading)를 통해 이루어진다(김동일, 이대식, 신중호, 2009). 이러한 단어인식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은 크게 의미중심(meaning-based) 프로그램과 해독중심(decoding-based) 프로그램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이 중 해독중심 프로그램의 하나가 음운인식(phonology awareness)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읽기장애학생들이 일반학생들보다 음운인식 기능이 낮다는 결과를 지지하고 있으며(Hallahan, Kauffman, & Lloyd, 1999), 이는 읽기장애학생을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강력한 예측 변인으로 제안되고 있다(Torgesen, 2002). 이렇게 음운인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음운인식 교수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국내문헌 분석 결과, 단어인식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로 분류된 총 23편의 연구들 중 10편에서 음운인식 훈련을 중재전략으로 다루고 있었다. 최근 김길순(2008a)은 음운인식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훈련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의 변화가 단어재인 및 철자쓰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음절 수준, 음절체-운모 수준, 그리고 음소 수준의 3단계 음운인식 훈련 프로그램을 중재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음운인식 훈련은 학습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을 30%이상 향상시켰고, 단어 및 비단어 모두에서 단어재인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에 효과적이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음운인식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단어재인 오류 유형을 변화(무응답과 음소 대치, 음절 생략→음소 대치와 음소 생략)시켰다.

한편, 안성우(2005)는 읽기장애아동들의 읽기 능력과 단어재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음운인식 훈련 프로그램과 PREP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Das(1999)에 의해 개발된 PREP(PASS Reading Enhancement Program)은 읽기 장애를 인지 과정 결함으로 보고, 인지 과정 결손과 읽기 능력 결손 간의 인과 관계를 밝히고자 개발된 인지 과정적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연구들에서 읽기 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이를 음운인식 훈련 프로그램 중 Blevens(1997)의 음소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와 비교한 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읽기 장애 아동들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프로그램 간 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효과 크기 면에서 음소인식 훈련 프로그램이 더 크게 나타났다.

안성우(2005)의 연구를 포함하여 PREP의 효과를 연구한 연구들은 총 6편(여광웅, 이점조, 2001; 이점조, 여광웅, 2002; 안성우, 2005; 장대식, 안성우, 정운기, 최은영, 김미경, 2005; 최정미, 강병주, 김성화, 변찬석, 2007; 최정미, 2008)으로 음운인식 훈련 프로그램 다음으로 많은 수로 나타났다. 최정미(2008)는 3명의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PREP에 의한 인지과정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의미단어와 무의미단어의 읽기기능과 문장 이해기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 결

과, PREP에 의한 인지과정 훈련으로서 연속적 처리과정과 동시적 처리과정 훈련은 의미 및 무의미 단어 읽기능력뿐만 아니라 문자 이해기능의 향상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미 외(2007)에서는 이러한 읽기 강화 프로그램으로서 PREP를 한글의 모아쓰기 체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량적 과제에 대해 수정한 PREP과 기존의 PREP이 입문기 읽기 위험 아동의 읽기 기능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량적 과제가 수정된 PREP이 기존 PREP보다 의미 단어의 3, 4유형과 무의미단어 전유형, 구문 이해력 면에 있어서 더 효과가 있었다.

조주현(2008)은 읽기장애 위험 아동의 읽기와 쓰기 등의 문식성 발달에 있어서 발음중심 교수법과 총체적 언어접근법의 한 가지 측면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접근하는 균형적 문해 프로그램을 구안하여 적용하였다. 초등학교 1학년 읽기장애 위험아동 3명을 대상으로 단일대상연구 중 아동 간 중다기초선 설계를 통해 기초선, 중재 및 유지 단계에서 의미단어와 무의미단어 읽기능력과 쓰기능력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이지영, 김정미(2006)는 단어재인(자소·음소 대응훈련과 단어게임)과 읽기이해(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질문에 따라 명시적 정보 찾기)의 혼합 중재가 초등학교 읽기장애아동의 비단어 읽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비단어 읽기 기술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고, 중재 종료 3주 후에도 습득효과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중재로, 한경임, 전희(2002)는 멀티미디어 언어 프로그램이 읽기와 쓰기능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고, 최성규, 송재웅(2003)은 ICT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적용한 결과 학습장애 아동의 낱말 읽기와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한편, 정광조, 김동일(2007)은 직접교수(DI) 원리를 적용한 한글읽기프로그램이 초등학교 읽기장애학생들의 읽기 유창성뿐만 아니라 초기 읽기 능력과 해독 능력을 포함하는 한글읽기성취능력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 외에, 다중지능을 활용한 교수(김주경,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2006),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이효신, 2002),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중재(최정미, 김성화, 강병주, 변찬석, 2006), 읽기·사회성 결합훈련(추은정, 박중규, 윤화영, 이영호, 2007) 등의 중재가 단어인식과 관련하여 연구되었다.

## (2) 읽기 유창성 향상에 관한 연구

읽기 유창성은 빠르고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Pierangelo & Giuliani, 2006). 읽기에 있어 단어인지 후 읽기이해를 위해서는 읽기의 속도와 정확성 즉, 읽기 유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읽기장애아동은 문자를 소리로 바꾸는 데 많은 인지적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의미를 이해하고 구성하는 과제에 배분하기 위한 주의능력에 심각한 제한점을 보인다. 그러나 유창하게 읽는 학생은 문자를 읽는 과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음운화에는 별다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지 않고 주의력을 문장이해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독해력에서도 우월한

능력을 보일 수 있게 된다(김동일, 2008). 즉, 읽기 유창성이 가능할 때 읽기 이해력이 향상될 수 있는 바, 읽기장애 및 읽기곤란아동을 지도하기 위해서 읽기 유창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적 지원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최근에는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에 대한 문제가 인식되고 있는 실정으로(이원령, 2007), 아직까지는 그 인식과 체계적인 접근이 미흡하다. 국내 문헌 분석결과, 총 9편의 연구가 읽기 유창성 교수의 효과성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재별 논문 분류의 세부 내용은 <표 9>와 같다.

김남영, 김자경(2006)은 빠른 이름 대기를 통한 반복훈련이 초등학교 읽기장애아동의 단어재인 속도와 유창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그 효과성을 밝혔고, 이태수, 김동일(2006)은 또래중재를 통한 읽기장애아동의 읽기 유창성 향상에 대해 연구하였다. 권주석(2005)은 읽기장애를 가진 아동들이 생활관련 읽기소재를 통한 훈련이 읽기장애아동의 유창성과 이해력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허승준, 정종희(2004)는 이야기 재연(story retelling) 전략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력과 유창성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야기 재연 전략 훈련은 소리 내어 읽기, 읽기 오류 교정, 이야기 지도 작성, 이야기 지도 점검의 4단계로 실시되었다. 읽기 유창성에 관한 연구 결과, 대상 아동 모두 중재 초반에는 기초선 기간과 동일한 수준의 성취도를 보이다가 중재가 진행되면서 단계적으로 향상되었으며, 유지 기간에도 중재 후반부의 성취도를 유지하였다.

이태수(2007)는 선행연구들에서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 향상에 효과가 확인된 반복적으로 소리내어 함께 읽기 전략(RCR)과 SQ3R(주어진 자료를 훑어보기(Survey), 제목을 질문으로 만들기(Question), 구체적인 답을 찾으며 읽기(Read), 질문에서 해답까지 암송하기(Recite), 그리고 재검토하기(Review)의 단계로 구성된 읽기이해 전략)의 두 중재가 읽기장애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RCR 훈련에만 참여한 집단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RCR 훈련과 SQ3R

<표 9> 읽기 유창성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연구기반 읽기교수	김의정, 최혜승, 장대준(2006)
이야기 재연 전략 훈련	허승준, 정종희(2004)
생활 관련 읽기소재에 대한 사전경험	권주석(2005)
RAN 과제 반복훈련	김남영, 김자경(2006)
반복읽기(RCR)와 SQ3R 독해전략	이태수(2007)
또래중재	이태수, 김동일(2006)
직접교수	정광조(2006), 정광조, 김동일(2007)
PBL 기반 정착적 교수법	허유성(2008)

훈련을 동시에 한 집단에서는 유창성에 있어서 RCR 훈련에만 참여한 집단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읽기 이해력에 있어서 다른 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향상도를 나타내었다.

김의정 외(2006)는 읽기 전, 읽기 중, 읽기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에 기반을 둔 읽기 유창성, 어휘 및 읽기이해 전략으로 구성된 연구기반 읽기교수가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이해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참여자의 읽기 유창성은 다소 향상되었으며 읽기이해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그러나 허유성(2008)이 중학교 통합교실에서 읽기 학습장애를 가진 학생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 전략의 하나인 프로젝트 기반(PBL)의 정착적 교수법(anchored instruction)을 통해 읽기 유창성의 집단 차이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3) 읽기 이해력 향상에 관한 연구

읽기이해는 자신의 선행지식을 글에서 제시되는 정보와 합치면서 의미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뜻하며, 읽기교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여러 교과영역 학습을 위해 읽기이해의 필요성이 점차적으로 증가된다(Williams, 1998, 김애화, 2006에서 재인용). 국내 문헌 검색 결과, 읽기 이해력 향상에 관한 연구는 총 27편으로 다음 <표 10>과 같다. 이 중 자기점검 전략에 관한 연구가 4편으로 가장 많았고, 과정중심 읽기훈련에 관한 연구와 질문 전략 관련

<표 10> 읽기 이해력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자기점검	유영옥, 안성우(2002), 정대영, 신현인(2003), 송효진, 허승준(2004), 정혜란, 박현숙(2007)	
과정중심 읽기훈련	김의정, 최혜승, 장대준(2006), 이수자(2006), 정대영, 이수자(2007)	
질문 전략	임정연, 안성우, 최상배, 김유(2006), 이태수(2007), 조정숙, 김진희(2008)	
컴퓨터 활용 전략	한경인, 전희(2002), 김애화(2004)	
상보적 교수	최병연(1999a), 서전성, 박현숙(2000)	
인지적 도식화 전략	정근영, 박현숙(2001), 황리리, 박현숙(2004)	
PREP	최정미, 강병주, 김성화, 변찬석(2007), 최정미(2008)	
기타	다중지능 활용 교수	김주경,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2006)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최정미, 김성화, 강병주, 변찬석(2006)
	이야기 재연 전략 훈련	허승준, 정종희(2004)
	생활 관련 읽기소재에 대한 사전경험	권주석(2005)
	총체적 언어학습법	정대영, 김지은(2001)
	책 읽어주기 활동	한영미, 박현숙(2008)
	교과서 독해, 내용 정리 전략	민혜정, 김윤옥(2002)
	작업기억 용량과 독해전략 교수법 간의 상호작용	최병연(1999b, 1999c)

연구가 3편으로 그 뒤를 이었다. 컴퓨터 활용 전략, 상보적 교수, 인지적 도식화 전략이 각각 2편씩이었고, 그 밖에 다중지능활용교수,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이야기 재연 전략 훈련, 생활 관련 읽기소재에 대한 사전경험, 총체적 언어학습법, 책 읽어주기 활동 등이 연구되었다.

국내 읽기 이해력에 있어 가장 많이 적용된 자기점검전략은 학습자 스스로 전략 사용을 계획, 수행, 평가,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읽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전략이다. 정혜란, 박현숙(2007)은 이러한 자기점검 전략으로서 자기감독 중재를 이용한 읽기지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수업 중 과제수행행동 및 읽기성취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자기관리 중재전략은 자기감독, 자기강화, 목표 세우기 등의 개별적 전략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자기관리 전략 중의 하나인 자기감독이란 장애학생이 스스로 행동 발생을 관찰, 기록하는 것으로써, 목표행동의 결과를 개인이 평가하고 자신의 수행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다. 주로 이러한 방법은 고학년 일반학생 및 장애학생의 과제 수행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특수학급 저학년에 재학 중인 읽기장애 학생 3명을 대상으로, 각 대상에게 적절한 읽기과제로 읽기지도 시 자기감독 훈련(자기관찰, 자기기록, 자기 그래프 그리기)을 실시한 결과, 대상자 모두 과제수행 행동률, 읽기과제 수행률 및 읽기과제 정반응률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유지검사에서 대상자 모두 높은 수준의 과제수행과 읽기 성취를 보였다.

과정 중심의 읽기 지도는 스스로 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자신의 학습과정을 점검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다양한 학습 방략들을 과제에 적절하게 사용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는 상위인지적 학습 방략이다. 정대영, 이수자(2007)는 이러한 과정 중심의 읽기 훈련이 읽기학습장애 아동의 독해력, 읽기 상위인지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과정 중심의 읽기 훈련은 읽기학습장애 아동의 독해력, 읽기 상위인지 및 읽기 태도 향상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종료 후 실시된 유지 검사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숙, 김진희(2008)는 질문전략을 활용한 독해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독해력 및 읽기 인식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질문전략을 활용한 독해 프로그램으로서 수정된 SQ3R 독해전략 훈련을 사용하였다. 수정된 SQ3R 독해전략은 Siegel과 Gold(1981)의 SQ3R을 수정한, 훑어보기(Survey), 사전질문하기(Question), 읽기(Read), 사후질문하기(Question), 회상하기(Recall), 복습하기(Review)로 구성되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읽기장애아동 3명을 대상으로 수정된 SQ3R 독해전략을 적용한 결과, 독해력에서 뚜렷한 향상을 보였으며, 중재 종료 이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었다. 또한 읽기에 대한 상위인지로서, 아동이 글을 읽으면서 자신의 사고과정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읽기인식 수준도 향상시켰다. 한편, 민혜정, 김윤옥(2002)은 SQ3R을 응용하여 구안한, “수호천사친구” 기억장치를 활용한 교과서 읽기이해 및 내용정리 전략을 적용하여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와 초인지를 향상시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김애화(2004)는 중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읽기이해 전략 교수를 위한 읽기이해 중심의 컴퓨터 보조 교수 프로그램(CACSR)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CACSR 프로그램은 크게 “협력 전략적 읽기에 관한 교수(learning CSR)”와 “협력 전략적 읽기를 사용하기(using CSR)”로 구성되어 있다. “협력 전략적 읽기에 관한 교수(learning CSR)”에서는 네 가지 읽기이해전략(사전 검토(preview), 읽기이해모니터링(click and clunk), 주요내용 파악(get the gist), 총괄(wrap-up) 전략)에 관한 체계적인 교수가 개요(overview), 시범(modeling), 안내된 연습(guided practice), 독립적 연습(independent practice)의 순서로 제공되어진다. 연구 결과, 읽기이해 중심의 컴퓨터 보조 교수를 받은 집단이 일반적인 읽기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읽기 이해력 향상을 나타내었다( $p < .05$ ).

읽기 이해 기술은 다양한 텍스트의 구조에 대한 독자의 이해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텍스트의 구조들을 검토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효과적으로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다. 이야기 도식화 전략 교수는 이야기 도식을 이용하여 이야기 구조를 직접 교수함으로써 읽기 전략을 가르치는 교수방법이다. 황리리, 박현숙(2004)은 초등학교 고학년 읽기장애 학생들에게 이러한 이야기 도식화 전략 교수를 실시하여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및 듣기 이해력으로서의 일반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교수 결과, 이야기 도식화 전략 교수를 받은 실험집단의 읽기 이해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고( $p < .01$ ), 교수의 효과가 듣기 이해력으로도까지 일반화되었다( $p < .01$ ).

서전성, 박현숙(2000)은 읽기장애 학생들에게 상보적 교수를 실시하여 읽기 이해력과 읽기 전략 사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상보적 교수는 협동 학습 집단에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대화를 통하여 읽기 전략으로 가르치는 전략으로, 학습자가 효과적인 읽기 전략에 대한 지식과 읽기 전략을 사용하는 이유 및 적용 방법 등에 대한 초인지 기술을 습득하고 읽기 활동에 자발적으로 전략을 사용하게 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는다. 초등학교 읽기장애아동들을 대상으로 상보적 교수를 실시하여, 읽기 이해력과 읽기 전략 사용 능력 검사를 사전, 사후에 실시하여 공분산분석을 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하여 상보적 교수 절차에 따른 실험 집단에서 읽기 이해력이 향상되었으며, 읽기 전략 사용 능력 측면에서는 통제집단에 비하여 실험집단에서 명료화하기 전략을 제외한 요약하기, 질문 만들기, 예측하기 전략 사용 능력이 향상되었다.

한편, 최병연(1999b; 1999c)은 글의 이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작업기억(working memory) 용량을 언급하며, 학습장애 학생의 작업기억 용량에 따라 어떠한 독해전략 교수법이 학습장애 학생들의 독해력, 전략 사용능력, 초인지 수준 향상에 효과적인가를 분석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중학교 국어, 사회, 환경 교과서에 발췌한 설명문을 활용해서 2(작업기억 용량-작은 용량, 큰 용량)×2(교수법-교사 주도적, 상호작용적) 요인설계로 실험하였

다. 연구 결과, 학습장애 학생의 작업기억 용량과 독해전략 교수법은 일부 인지적 요인에서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작업기억의 용량이 큰 학생들의 초인지 수준 향상에는 상호작용적 전략 교수법이 효과적이며, 작업기억 용량이 작은 학생들의 독해력과 초인지 수준 향상에는 교사 주도적 교수법이 효과적이었다. 또한, 상호작용적 전략 교수법이 교사 주도적 전략 교수법보다 학생들의 독해력, 초인지 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학습장애 학생일지라도 작업기억의 용량이 크다면 구성원들간의 상호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지적 갈등을 수용할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원호택 외(2000)의 연구에서는 작업기억과 해부호화 기술이 한글 읽기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로 두 가지 연구를 하였는데, 첫 번째 연구를 통해 읽기장애 아동은 정상아동에 비해서 해부호화의 정확도와 속도가 떨어지고 작업기억의 용량이 작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이를 토대로 두 번째 연구에서 읽기장애아동의 작업기억과 해부호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교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한 결과, 작업기억과 해부호화 기술의 향상이 읽기장애를 개선하는 데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 (4) 어휘력 향상에 관한 연구

어휘력 정진을 위한 교수 전략에 대한 연구들은 새로운 단어에 대한 의미나 정의를 전반적인 글의 맥락 속에서 설명하는 것이 단순히 새로운 단어의 사전적 의미나 정의를 제공하는 방법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한다(김동일, 이대식, 신중호, 2009). 어휘력 향상에 관한 국내의 중재 연구들은 어휘에 대한 맥락으로서 주로 동화를 사용하고 있었다. 국내 문헌 분석결과, 6편의 논문에서 어휘력에 미치는 중재 효과를 연구하였는데, 그 중 3편에서 동화를 활용한 언어지도를 하였고, 단어 사이의 연관성 지도 효과와 핵심어법 교수전략, 그리고 또래지도에 관하여 연구가 이루어졌다. 각 중재별 해당 논문은 <표 11>과 같다.

최성규, 조영옥(2004)은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고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매체 중 하나인 동화를 활용한 연극놀이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의 수준을 고려한 동화를 선정하여 연극놀이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적용하였고, 중재 전후에 한국표준수용어휘력 검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연극놀이 프로그램 적용 후에

<표 11> 어휘력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동화를 활용한 언어지도	동화 애니메이션	박경혜, 최성규(2005)
	연결어휘를 이용한 창작동화	최성규, 강영남(2003)
	동화를 활용한 연극놀이	최성규, 조영옥(2004)
단어 사이의 연관성 지도		최성규, 남상직(2004)
핵심어법 교수전략		최세민, 신정남(2005)
또래지도		권요한, 정소남(2001)

연구대상의 어휘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은 적극성을 보이며 문제의 발단에 대한 사고능력을 발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후, 박경혜, 최성규(2005)는 동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언어 프로그램을 학습장애 아동에게 적용하여, 수용어휘력과 표현어휘력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을 검증하였다.

최성규, 강영남(2003)은 마찬가지로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매체로서 동화를 꼽고, 이를 연결어휘에 기초하여 구성한 뒤 학습자료로 활용하여 구연하였을 때 학습장애 아동들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적어휘에 대한 언어의 연결특성에 기초하여 구성된 창작동화가 학습장애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단어 사이의 연관성에 기초한 지도 효과를 보았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하게 최성규, 남상직(2004)은 표적 어휘를 중심으로 연상되는 단어를 세부 가지별로 제시하는 과정으로서 마인드 맵 학습 전략이 학습장애 아동의 어휘력 발달에 있어 개념 및 의미어휘에 미치는 영향과 품사별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마인드 맵 학습 전략은 학습장애 아동의 개념어휘 및 의미어휘의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품사별 어휘 수는 명사, 형용사, 동사의 순으로 증가하였으나, 전후검사에 대한 어휘의 증가율은 형용사, 명사, 동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세민, 신정남(2005)은 핵심어법을 활용한 교수전략이 학습장애 학생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중학교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핵심어법을 활용한 교수를 실시한 결과, 부과 심상 핵심어법을 활용한 어휘교수방법은 학습장애 학생의 어휘력을 증진시키고, 어휘 재생 및 재인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한편, 권요한, 정소남(2001)은 또래지도가 일반학급 경도장애아동(경도정신지체와 학습장애)의 읽기와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 하였다. 연구 결과, 경도장애아동의 읽기 능력과 어휘력을 향상시켰고, 또래 도우미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학습 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수학장애

수학은 위계가 뚜렷한 과목이어서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기초적인 학습 즉,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 연산에서의 숙달은 모든 수학 학습에서의 기초적인 토대라 할 수 있다. 학습장애 학생들의 경우, 일반 학생들보다 연산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저조한 성취를 보일 수밖에 없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되는 실패와 누적되는 학습 결손으로 인해 수학 학습에 흥미를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습장애 학생들을 위한 중재연구는 대부분 읽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수학 영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연구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읽기 영역의 연구가 62편인데 비해 수학 영역의 연구는 26편에 그쳐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다. 한편, 수학학습장애

에 관련 연구들은 크게 수와 연산과 문장제 문제해결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연산과 관련된 영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된 데 비해(Dowker, 2005), 국내의 연구는 수와 연산 영역에 비해 문장제 문제해결 영역에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 (1) 수와 연산

국내 논문 분석 결과, 수와 연산 능력의 향상에 관한 중재 연구는 총 6편이었다. 중재별 문헌은 다음 <표 12>에 제시되어 있다.

이 중 국미경, 최유순(2001)과 김순영, 문영호(2003)는 자기교시훈련이 수학학습장애 학생의 연산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국미경, 최유순(2001)은 Montague(1992)가 제안한 인지, 메타인지 전략모형 7단계 전략(문제의 정의, 문제의 자기언어화, 시각화, 문제해결 계획, 답의 예측, 내적언어화, 답의 검산 및 자기강화)을 토대로 사칙연산에서 수학학습장애를 보이는 중학교 학생들에게 자기교시훈련을 시켜서 그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자기교시훈련은 수학학습장애 학생의 사칙연산능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수학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김순영, 문영호(2003)는 자기교시훈련이 사칙연산 중 나눗셈 연산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 6학년에 재학 중인 수학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Meichenbaum과 Goodman(1971)의 자기교시훈련 모형을 적용한 다른 연구들의 훈련안을 참고하여 나눗셈 연산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나눗셈 연산과정의 오류 경향 특성은 나눗셈 연산과정에서 가장 핵심인 몫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타났고, 자기교시훈련은 나눗셈 연산과정에서 연산전략을 수립하는 데 효과가 있었고, 계산 결과를 검산하는 기능을 통해 오류를 방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으며, 나눗셈 연산학습력의 향상과 성취된 연산학습력의 유지에 효과가 있었다.

김동일, 이태수(2005)는 기초 연산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아동에게 직접교수의 원리를 반영한 중재프로그램과 교육과정중심측정의 원리가 반영된 “기초학습수행평가체제-수학(BASA-math)”을 활용하여 교사와 아동에게 진전도 모니터링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직접교수와 진전도 모니터링이 수학학습부진 및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연산 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반복측정에 따

<표 12> 수와 연산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자기교시훈련	국미경, 최유순(2001), 김순영, 문영호(2003)
직접교수와 진전도 모니터링	김동일, 이태수(2005)
웹 코스웨어	장진국, 문교식(2004)
가르기-모으기 놀이	김성화, 강병주, 최정미, 변찬석(2006)
조기 수학 교수	이윤미, 김애화(2008)

른 연산능력의 발달 패턴을 탐색하였다. 선전된 연구대상을 학년마다 세 집단(전통적 교수집단, 직접교수집단, 직접교수+진전도 모니터링 집단)으로 나누었다. 그 결과, 전통적 교수집단에 비하여 직접교수집단이, 직접교수집단보다는 직접교수와 진전도 모니터링을 동시에 활용한 집단이 기초연산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또한, 직접교수와 진전도 모니터링을 동시에 활용한 집단은 연산 수행능력에서 매 주마다 일정비율의 성장속도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 장진국, 문교식(2004)은 학습장애 학생의 수 개념을 향상하기 위한 웹 코스웨어를 개발·적용하여 효과를 밝혔고, 김성화 외(2006)는 가르기-모으기 놀이를 통한 연산 학습 훈련이 수학학습장애 아동들의 가감산 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윤미, 김애화(2008)는 수감각 발달을 위한 조기 수학 교수가 수학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수개념과 연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수감각 발달을 위한 조기 수학 교수가 수와 연산 학습에 적용할 수 있도록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2-나 단계까지의 수학교육과정을 분석한 후, 단계별 지도 요소를 추출하고 지도내용을 구성하여 중재도구로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 모두 수개념 및 연산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문장제 문제해결

문장제 문제해결에 관한 중재로서는 주로 인지-초인지전략과 표상학습전략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이러한 중재 전략을 다른 연구를 분류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3>과 같다.

인지-초인지 전략은 문장제 문제해결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중재 전략이다.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지-초인지 전략은 Montague(1992)의 인지-초인지 문제해결 모델로서, 인지 전략 과정인 이해, 해석, 변형, 계획, 예측, 계산, 평가와 초인지 전략 과정인 자기교수, 자기질문, 자기점검이 포함되어있다. 강옥려, 고승희(2005)는 초등학교 3, 4학년 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인지-초인지 전략 훈련이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력, 문제해결 지속시간, 시간에 따른 정반응율, 그리고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인지-초인지 전략 훈련은 학습장애 아동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력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문제해결 지속시간에 있어서도 기초선 단계에서 아주 짧았지만 중재 단계에서 길어지는 결과를 나타냈고, 문제해결 지속시간에 따른 정반응율을 향상시켰다. 또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에도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최세민(2006)은 전략훈련(인지-초인지 전략, 자기교수 전략)과 설명적 교수가 학습장애 학생의 수학

<표 13> 문장제 문제해결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인지-초인지 전략	최세민(2001a), 최세민(2001b), 최세민(2002), 강옥려, 고승희(2005), 최세민(2006)
표상학습전략	국미경, 곽행숙(1999), 이태수, 유재연(2006)
기타	김소희(2004), 김소희(2008)

문장제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습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략훈련은 설명적 교수방법보다 학습장애 학생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능력을 증진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략훈련의 효과 및 학습과제의 유지 효과는 학습과제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단순과제의 경우 두 방법(인지-초인지 전략, 자기교수 전략) 모두 설명적 교수방법보다 효과적이고 유지가 잘 되었으나 복합과제의 경우 인지-초인지 전략 훈련은 설명적 교수방법보다 효과적이고 유지 효과도 높았으나 자기교수 전략 훈련은 설명적 교수방법과 차이가 없었다. 한편, 전략훈련은 설명적 교수방법보다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된 무력감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수, 유재연(2006)은 의미구조에 기초한 표상기법이 수학학습부진 및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문장제 문제해결 능력과 발달패턴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표상기법이란 그림이나 도식 및 구체적 사물 등을 이용하여 문장에 제시된 여러 단서들을 시각적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핵심어 전략과 다이어그램 및 도식 전략이 포함된다. 여기서는 이 중 핵심어 전략과 도식 기법을 함께 활용하여 적용하였고, 그 결과 의미구조에 따른 표상기법은 전통적인 보충학습지도방법보다 수학학습부진 및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문장제 문제해결 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미경, 곽행숙(1999)은 또한 이러한 표상전략을 중학교 수학학습장애 학생에게 적용한 결과 긍정적 효과를 보고하였다.

그 밖에 김소희(2004)는 인지 전략, 그림 전략, 그리고 핵심어 전략을 중심으로 학습장애 학생 및 수학 학습 부진아들의 성취도에 미치는 세 전략의 효과, 그리고 어떠한 전략이 다양한 유형의 수학 문장제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하도록 돕는 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핵심어 전략이 단기간에 학생들의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었으며, 유지 및 전이 효과 면에서도 우수하였다. 한편, 김소희(2008)는 학습장애 위험군 아동을 위한 일반학급 교사의 일차적 중재와 관련, 수학 문장제에 대한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 및 교수·학습전략 사용 현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분석, 보고하였다. 그 결과, 일반학급 교사들도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 전략과 기술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문장제 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의 언어이해력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하였고, 문장제 지도를 위한 교수·학습 전략 중에서는 교사가 그림을 이용하여 교수하는 전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기타

이대식, 장수방(2002)은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 그리고 교사용 지도서를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들을 위한 수학 학습 교재

개발 요구와 필요성 및 그 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현재의 수학 교과서는 수학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내용 제시 속도가 시간 당 소화해야 할 과제 유형 수에 비해 빠르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단계가 너무 빨리 제시되고 있었다.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 유형의 수에 비추어 개별 연습문제는 물론, 복습문제, 문제해결 문제, 실생활 문제, 놀이나 게임 등의 활동이 단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나고 있었고, 사전 기술이나 지식의 확인과 보충, 그리고 오류 유형별 교정 활동은 현재의 교과서가 갖추어야 할 가장 시급한 요소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병혁(2005)은 수학부진아동들의 수학성취를 향상시키기 위해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하는 수업담화를 계획할 때 선결해야 하는 요인들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구성주의의 기본 전제들을 반영하여 하나의 담화형태를 정리하였고, 이를 실제 수업에 적용한 결과 도출된 특성들을 바탕으로 선결 요인들을 제안하였다. 그 외에 이재승(1999)은 역동적 평가가 수학학습장애 학생의 수학추리기능과 동기에 미치는 효과를 밝혔고, 정정희(1999)는 초기개입 프로그램 경험이 학습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비형식적 수학 사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3) 쓰기장애

쓰기란 언어적 전달 내용을 기호로 전환하는 과정이며, 언어의 소리를 정확한 철자 형태를 갖춘 문자 기호로 나타내는 과정이다. 언어 기술에서 가장 복잡한 영역이 쓰기이며, 단순히 글자를 쓰는 낮은 수준에서부터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높은 수준의 능력에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김동일, 2002). 쓰기학습장애의 하위 영역은 글씨쓰기(습자, handwriting), 철자쓰기(spelling), 작문(written expression-composition)으로 분리하여 살펴볼 수 있다(김동일, 이대식, 신중호, 2009).

한편, 쓰기학습장애를 위한 중재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한 논문으로 최근 정혜승, 김소희(2008)의 문헌 연구가 있었다. 정혜승, 김소희(2008)는 총 28편의 선행연구를 진단 준거 및 중재 전략의 내용 면에서 분석하였다. 이 중 15편이 중재 연구로서, 쓰기학습장애의 하위 영역과 관련된, 쓰기 표현(written expression) 중심, 철자(spelling) 중심, 문장 및 문단 구성(sentence & paragraph writing writing) 중심, 습자(handwriting) 중심 중재 연구로 나누어 고찰되었다. 국내의 쓰기학습장애 관련 연구가 많지 않고, 이미 앞선 선행 문헌 연구에서 쓰기학습장애 중재 관련 연구들을 다룬 바, 여기서는 선행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연구를 중심으로 하되, 각 영역의 핵심 연구들도 간략히 분석하겠다.

## (1) 글씨쓰기

정혜승, 김소희(2008)에서도 다룬 것처럼, 습자(handwriting)를 다루고 있는 국내의 연구는 김영한(2002)이 연구 중 일부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유일하다. 김영한(2002)은 의미 중심적 쓰기 지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장애아의 의미 표현적 쓰기(그림, 말, 쓰기의 협응성, 그림의 정교성과 통합성, 글 내용의 복잡성, 쓰기의 유창성, 쓰기의 상세성 등)와 관습적 쓰기(글자의 모양, 소리/상징의 관계성, 철자법, 구두법, 띄어쓰기 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의미 중심적 쓰기 지도는 총체적 언어 교육 접근의 일환으로서, 학습자가 글을 쓰는 행위는 의미 구성의 과정이므로 쓰기기 지도도 그 의미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문자 그 자체보다는 단어나 문장을 중심으로 의미가 있는 언어의 단위를 강조하고 글의 내용과 의미 파악에 초점을 두고 지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3명의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장애아를 대상으로 의미 중심적 쓰기 지도를 실시한 결과, 대상 아동들의 의미 표현적 쓰기의 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었고, 관습적 쓰기에서도 구두법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영역에서 효과가 나타났다.

## (2) 철자쓰기

철자쓰기와 관련된 연구는 총 5편이 검색되었다. 여기에서 사용된 중재 방법은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 ICT의 수준별 적용,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중재, 음운인식 훈련이다. 중재별 논문은 다음의 <표 14>와 같다.

이효신(2002)은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Providing Alternative Thinking Strategy: PATH)을 이용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읽고 쓰는 능력의 신장에 미친 효과를 알아보고 읽고 쓰는 수업과정에서 나타난 오류 특성을 분석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국어교과 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PATH 전략으로 관련 낱말과 문장을 읽고 쓰는 활동을 한 결과, 학습장애 아동의 낱말 읽기 능력 향상 및 낱말 쓰기 능력(철자 영역) 향상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 활용 철자쓰기 중재 전략으로는 한경임, 전희(2002)의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과 최성규, 송재웅(2003)의 ICT의 수준별 적용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경임, 전희(2002)의 연

&lt;표 14&gt; 철자쓰기에 관한 중재 관련 문헌

중재		관련 문헌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		이효신(2002)
컴퓨터 활용 철자쓰기 중재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	한경임, 전희(2002)
	ICT의 수준별 적용	최성규, 송재웅(2003)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최정미, 김성화, 강병주, 변찬석(2006)
음운인식 훈련		김길순(2008)



구는 학교 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와 쓰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초등학교 3학년 학습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및 쓰기 능력 향상에 효과적이었는데,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의 시청각적 자극과 매번 제공되는 피드백이 그러한 효과에 작용했다고 분석하였다. 최성규, 송재웅(2003)은 학습장애 아동의 쓰기능력 신장을 위해 지도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인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 다양한 형태로의 구체적 경험을 통한 학습 정보의 인지 기회 제공, 학습 동기 부여, 그리고 주의집중력 향상 방안 등은 ICT의 장점과 유사하다며, 이러한 ICT를 수준별로 적용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와 쓰기 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ICT의 수준별 적용은, 제 1수준의 적용으로서 문자 변별하기, 제 2수준의 적용으로서 낱말 읽기, 제 3수준으로 적용으로서 낱말 쓰기를 의미한다. 연구 결과, ICT의 수준별 프로그램은 학습장애 아동의 낱말 읽기 및 낱말 쓰기 능력 신장에 효과적이었다. 특히, 낱말 쓰기 능력 신장에 있어 프로그램 적용 후 자형, 필순, 받침 있는 낱말 쓰기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최정미 외(2006)는 마찬가지로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와 쓰기 능력에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중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였다. 경험이야기 받아쓰기(dictated experience stories)는 아동에게 아동 경험 속에서의 언어표현, 확장, 활용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방법으로서, 경험 속 언어를 활용하여 말하는 아동의 문장과 이야기를 교사가 받아쓰고, 교사가 받아쓴 그 문장이나 이야기를 아동으로 하여금 읽게 한 뒤, 다시 교사가 받아쓴 그 문장을 아동이 보고 쓰는 연습을 하는 방법이다. 연구 결과,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중재는 학습장애 아동의 문장 읽기 능력, 문장 이해력과 받아쓰기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었다.

철자쓰기에 관한 중재로서 가장 최근에 다루어진 전략은 김길순(2008)의 음운인식 훈련에 관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단어재인과 철자쓰기에 필요한 음운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아동의 현재 수행 수준에 맞는 음운인식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음운인식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 훈련에 따른 음운인식 능력의 변화가 단어재인 및 철자쓰기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여기서 음운인식은 Goldsworthy가 제시한 음운인식의 4가지 하위 영역 즉, 단어 수준(word level)과 음절 수준(syllable level), 두음-운모 수준(onset-rhyme level), 음소 수준(phonemic level)의 음운인식 중에서 단어 수준을 제외한 3개 수준의 음운 단위를 알고 조작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활동 과제를 선정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음운인식 훈련이 철자쓰기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음운인식 훈련을 받은 아동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단어와 비단어 철자쓰기 모두 자신의 초기 수행수준에 비해 상당히 향상되었고, 초기 수행수준이 낮은 아동의 경우에도 향상 정도는 다른 아동에 비해 낮았으나 초기 수행수준 대비 향상 비율은 훨씬 높았다.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 아동의 철자쓰기 오류 유형에도 변화를 미치는 것으

로 밝혀졌다.

### (3) 문장 및 문단 구성

문장 및 문단 구성 중심의 증재 연구로서는 총 4편(김윤옥, 2002; 김윤옥, 2004; 김윤옥, 전정미, 2003; 임남순, 김윤옥, 2006)이 검색되었다. 편수로 4편이지만 모두 김윤옥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최근에 연구된 임남순, 김윤옥(2006)은 문장작성 전략이 초등학교 학습부진 및 학습장애 학생들의 문장작성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에 적용된 프로그램은 김윤옥(2004)에서 개발된 '호랑이 문장작성 전략'이다. 연구 결과, 학습장애 및 학습 부진 학생들이 문장작성 전략을 완전학습 할 수 있었으며, 전략 훈련이 문장작성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윤옥(2002b)은 한국 학습장애 학생에 대한 영어작문 전략교수의 효과도 연구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된 영어작문 전략은 문장 완성 조건을 포함한 PENS 전략이었다. 연구 결과, 하나의 포괄적인 작문 전략에 대한 직접교수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학습장애 학생들에게 완전한 문장을 독립적으로 작문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효과적임을 제시하고 있다.

### (4) 쓰기표현

쓰기학습장애와 관련해서 쓰기표현과 관련된 증재에 대한 연구가 8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러한 연구들을 증재별로 제시하면 다음 <표 15>와 같다.

신진숙, 김진희(2005)는 쓰기능력신장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워드프로세서와 웹 메일을 이용한 쓰기 지도를 쓰기학습장애 아동에게 적용하여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효율적인 쓰기 지도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 쓰기학습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워드프로세서 기능 훈련과 웹 메일을 이용한 쓰기 표현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워드프로세서와 웹 메일을 이용하여 글의 주제에 따른 중심 내용과 글의 특징을 살려 쓰게 하는 지도는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글의 질적 수준 향상에 도움을 주고, 워드프로세서의 기본 기능을 활용한 쓰기 지도는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글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워드프로세서를 활용한 쓰기표현 교수를 적용한 연구로는 심정와, 박현숙(2000)이 있다.

<표 15> 쓰기표현에 관한 증재 관련 문헌

증재	관련 문헌
컴퓨터 활용(워드프로세서) 쓰기 교수	심정와, 박현숙(2000), 신진숙, 김진희(2005)
심상그리기를 활용한 과정중심 글쓰기	최미숙(2006), 정대영, 최미숙(2007)
협동적 쓰기 교수	배성미, 박현숙(2002)
이야기문법 자기평가 교수전략	고혜정, 박현숙(2005)
그래픽 조직자 전략	이선화, 김자경, 서주영(2006)
자기조정 전략	윤송이, 강옥려(2008)

정대영, 최미숙(2006)은 심상그리기를 활용한 과정중심 글쓰기 방략이 초등학교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림 자료와 동일한 성격을 가진 심상그리기는 생각하기를 싫어하고, 쓰기에 대한 심리적 공포를 느끼고, 좌절을 경험하는 쓰기 학습장애 아동의 글쓰기 지도 과정에서 심상을 시각화하여 정보의 회상을 도울 수 있다. 여기서는 쓰기학습장애 아동들이 경험하는 문자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심상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단계에서 그리기를 도입하여 이들의 어휘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쓰기학습장애 아동 3명을 대상으로 해당 방략을 적용한 결과, 심상 그리기를 활용한 과정중심 글쓰기 방략은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어휘력의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을 향상시켰고, 이러한 결과는 중재 종료 2주 후에 실시된 유지 검사에서도 지속되고 있어 심상그리기를 활용한 과정중심 글쓰기 전략은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쓰기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송이, 강옥려(2008)는 자기조정전략(Self-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 교수가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자기조정전략은 쓰기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의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모델 중 하나로서, 쓰기 과정에 목표설정, 자기교수, 자기점검, 자기평가, 자기강화와 같은 전략을 적용하여 쓰기 지도를 하는 교수방법이다. 연구 결과, 중재 이후 대상 아동의 이야기 글의 내용과 길이가 향상되었으며 쓰기 시간이 증가하였다. 향상된 글의 내용은 일반화 및 유지되었으며 글의 길이는 부분적으로 일반화와 유지가 되었다.

또한, 배성미, 박현숙(2002)은 교사를 짝으로 하는 협동적 쓰기 교수가 초등 작문장애 학생의 쓰기표현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협동적 쓰기는 글의 계획에서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체 과정에서 짝과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한 협력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쓰기 과정에 필요한 전략과 기술들을 자연스럽게 내면화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 이야기문법 자기평가 교수전략에 대해 연구한 고희정, 박현숙(2005)의 연구와 그래픽조직자전략에 대해 연구한 이선화, 김자경, 서주영(2006)의 연구가 쓰기학습장애 학생의 쓰기표현력에 대한 중재 전략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 (5) 기타

김동일(2002)은 초등학교 아동의 쓰기능력을 탐색하고 쓰기장애를 진단하며 적절한 중재를 실행하기 위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초등학교 아동 278명을 대상으로 쓰기검사를 실시한 뒤, 쓰기오류의 유형별 출현율을 살펴보고 교사의 평정 혹은 학급의 특성(일반학급/특수학급) 등에 따른 쓰기오류의 출현율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쓰기 유창성을 나타내는 양적인 측정 지표(총음절, 총단어, 정확음절, 정확단어)는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에서 타당한 척도라는 점이 시사되었다. 또한, 특수학급 학생들이 같은 학년의 일반학급 학

생보다 더 많은 오류를 나타내며, 특히 음절의 대치가 두드러졌다.

#### 4) 기타

##### (1) 학습 관련 연구

###### ① 시험전략

강영수, 김윤옥(2002)은 시험전략의 기억장치로서 “보물섬지도”를 활용하여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학업 성취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상위 5단계, 하위 5단계의 총 10단계인 “보물섬지도” 시험전략은 시험 준비하기, 시험문제의 지시사항 파악하기, 시험문제 관련 사항 떠올리며 답 찾아내기, 정답을 쓰거나 표시 후 넘어가기, 표시 한 문제에 대해 추측하기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 학습장애 학생들이 시험전략을 완전학습 할 수 있고 전략 훈련이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② 웹 기반 개요제시방식

권성호, 심영경(2004)은 웹 기반 학습 상의 개요제시방식을 문자-위계적인 개요제시방식과 그림-위계적인 개요제시방식 두 가지로 선정하여 학습장애 아동의 학업성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웹 기반 학습에서 그림-위계적인 개요 제시 방식은 학습장애 아동들이 선택적 주의 집중 능력과 부호화 능력 등 학습에 대한 자발적인 능력을 가지지 못한 것을 보상하며 학습장애 아동의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협력교수

김라경, 박승희(2002)는 협력교수가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협력교수의 실시는 일반학생과 학습장애 학생 모두의 사회과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통하여 통합교육 실시가 일반 학생에게 학업적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는 근거가 없거나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면 장애학생 뿐 아니라 일반학생에게도 학업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시사하였다.

###### ④ 동화읽기 프로그램

김영본, 조정연(2007)은 학습장애 학생에게 동화읽기 프로그램을 통한 말하기와 듣기능력인 언어표현력을 향상시키고자 연구하였다. 학생의 개별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으로 전래동화, 창작동화, 명작동화 등 다양한 장르의 동화읽기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적용한 결과, 말하기능력은 발음·어휘, 문법, 자세 및 태도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듣기능력 평가결과에서도 자세 및 태도 이해 면에서 효과가 있었다.

#### ⑤ 동시촉구

최은영(1999)은 동시촉구가 발달상 학습장애 아동의 대상명명에 대한 대상명명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동시촉구절차는 발달상 학습장애 아동의 대상명명 획득에 효과적이었고, 시간 및 상황에 따른 일반화에도 효과적이었다.

#### ⑥ 멀티미디어 정착수업

허승준(2002a)은 미국의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4명의 교사와 96명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멀티미디어 정착수업이 비판적 질문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정착수업은 학습준비, 영화 시청 및 줄거리 토론, 문단 나누기, 등장인물 분석, 연구과제 수행 및 발표의 다섯 단계로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멀티미디어 정착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능력이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학생보다 더 높았다. 또한 정착수업에 참여한 경도장애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능력은 같은 집단의 비장애 학생과 차이가 없었으나 강의식 수업에 참여한 비장애 학생보다 더 높았다. 즉, 멀티미디어 정착수업은 비장애 학생은 물론 경도장애 학생들의 비판적 질문능력 향상에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이었다.

#### ⑦ 문제중심학습

문제중심학습은 구성주의에 대한 관심과 함께 등장하였다. 임소인, 신현기(2005)는 선행연구 및 예비 연구를 토대로 경도장애 학생들의 문제중심학습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새롭게 만들어진 수업모형을 적용한 수업의 분석을 위해 경도학생들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예로 학생요인, 장애요인, 교사요인, 수업요인, 환경요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문제중심학습의 대표적인 특징을 학습자 중심, 실생활이 반영된 복잡하고 비구조화된 문제, 협동학습, 자기주도적인 학습활동, 토론중심의 학습, 평가의 다양성 적용 등 7가지로 규명하여서 학습의 효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비판적(반성적) 사고 기능,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 협동학습의 기능성이 제고됨을 시사하였다.

#### (2) 정서 및 행동 관련 연구

학습 외, 정서 및 행동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들은 다음 <표 16>에 제시된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김수향(2005)은 자기교수법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하였다. 중재는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각 하위영역별

&lt;표 16&gt; 정서 및 행동 영역의 연구

목표 행동	관련 문헌
자아개념(자아존중감)	정재권, 오정근(2003), 김수향(2005), 박용수, 채희태(2005), 선우현(2007)
부적응 및 문제행동	김소영, 이근매(2001), 황세경, 이근매, 조용태(2004), 최은영, 박제현(2005)
자기결정력	류숙렬(2002, 2003)
사회성, 이타적 행동	김하경, 최득남(2003), 김경숙, 신진숙(2008)

자아개념(일반자아개념, 학업자아개념, 사회자아개념, 정서자아개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권, 오정근(2003)은 그들의 연구에서 도덕과 협동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학습태도와 자아개념 향상에 영향을 미쳤음을 밝혔다. 선우현(2007)은 부정적 부모-자녀 관계를 보이는 학습장애 아동에게 가족놀이치료가 자아존중감 및 자기 효능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한편, 박용수, 채희태(2005)는 완전통합교육환경이 학습장애 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일반학교의 완전 통합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습장애 학생들이 느끼는 자아존중감과 부분적 통합교육환경에서 교육받고 있는 학습장애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학습장애 아동의 부적응 및 문제행동과 관련하여서는 미술치료의 중재 효과만이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소영, 이근매(2001)는 언어지도를 병행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부적응행동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중재는 자아 존중감과 자기 통제력의 향상을 보였고, 부적응 행동의 개선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후, 황세경, 이근매, 조용태(2004)에 의해 개별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가 연구되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술치료 활동이 학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특히, 위축, 우울/불안, 사회적 미성숙, 사고 문제 등에서 개선의 효과가 나타났다. 또, 미술치료의 회기별 과정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혼잣말하기, 감정표현과 의사표현의 부족이 개선되어 자신감이 향상 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은영, 박제현(2005)은 가족미술치료는 학습장애 아동 어머니의 훈육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며, 학습장애 아동과 그 형제의 정서·행동문제를 감소시켰음을 발견하였다.

류숙렬(2002, 2003)은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이 전이기 경도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 중재를 통하여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이 향상되었음이 검증되었다. 결과를 통해 자기결정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시도가 전이기 전이 교육 및 서비스의 계획과 실행의 일환으로서 장애학생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생활의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적 접근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시사되었다.

그 밖에 김경숙, 신진숙(2008)은 체육과 또래교수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이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체육과 또래 교수 프로그램은

고등학교 학습장애 학생들의 교사와의 관계, 교우 관계 등 사회성을 함양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수업, 학교 규칙 준수, 학교 행사 참여 등과 같은 학교 생활 적응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켰다. 김하경, 최득남(2003)은 그들의 동료수용·이해훈련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이타적 행동 및 사회적 책임감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다.

### (3) 기타

기타의 연구로는 학습장애 학생의 중재와 지원 관련 교사들의 인식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박현숙, 조운경(2004)은 학습장애 학생 지원체계에 관하여 관련 교사들(특수교사 10명, 일반교사(학습부진 프로그램 담당) 9명, 학습부진 프로그램 강사 11명 등 총 30명)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경도장애에 대한 부모들의 부정적 인식과 교사들의 업무 과다의 문제, 강사와 관련되는 열악한 여건들이 학습장애 학생 지원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학습장애와 학습부진 관련 교사들의 역할 정체성의 확립이 필요하며 대상 아동들에 대하여 일반학급 담당교사의 책무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 지원 보조원의 활용과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 수립과 교수 여건 전반에 대한 개선의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또한, 동일 연구자들에 의한 다음 연구(박현숙, 조운경, 2005)에서는 일반학급 내 학습장애와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초등 일반교사의 판단 기반 교육적 지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여기서 저학년에서는 학습부진보다 학습장애 아동이, 고학년에서는 학습장애보다 학습부진의 발생율이 높게 보고되었다. 그리고 모든 학년에서 학습장애와 학습부진 아동의 경우 자문이나 특수학급에 의한 교육적 지원 없이 일반학급에서만 교육을 받는 경향이 월등히 높았으며, 학습장애의 경우 일반학급과 특수학급 저학년에 학습부진보다 더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승숙(2004)은 초등학교에서 협력교수를 실시하고 있는 일반 및 특수교육 교사 총 30명을 대상으로 학습장애 등 경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내 협력교수의 실제(모형과 전략)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 교사들은 협력교수를 학습장애 학생 등 경도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에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교수-지원 모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실제 수업 시에는 교수-지원모형과 더불어 다른 모형도 같이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모형마다 다양한 교수기술과 교사특성을 요구하며, 다양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음이 나타났다. 방명애, 최하영(2003)은 초등 경도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기술 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들 모두 자기결정기술 교수프로그램이 초등 경도장애아동의 자기결정기술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특수교사는 6개의 하위영역에서 모두 효과가 있었다고 인식한 반면에, 일반교사들은 자기인식영역을 제외한 5개의 하위영역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인식하였다.

#### 4. 기타: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및 해외 사례 분석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및 해외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로는 총 12편(4.2%)의 논문이 있었으며, 관련 문헌을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 17>과 같다.

학습장애에 대한 교사 및 교육관련자들의 인식에 관한 6편의 연구를 찾을 수 있었으며, 이에 는 예비보육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강대옥, 박재국(2002),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교한 강종구(2008)와 김동일, 이일화(2003), 일반교사의 인식을 조사한 이원령(2006)과 최진오(2007), 특수교육 관련 연구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이원령, 이한우(2004)가 있었다.

특히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을 비교 조사한 결과 두 집단은 명시적 지식에 있어서는 두드러지는 차이를 보였으나, 묵시적 지식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두 집단이 잘 발달된 공통의 밑그림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김동일, 이일화, 2003), 특수교육 관련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학 력과 경력이 높을수록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원령, 이한우, 2004).

이 밖에 학습장애 연구와 관련한 해외의 동향을 분석한 5편의 연구가 있었으며, 이 연구들은 호주에서의 학습장애 법제화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학습장애의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정해진, 2005), 학습장애 판별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례를 살펴보며(강옥려 외, 2008; 양민화, Timothy Landrum, 2005), 독일의 학습장애 교육 현황(김성애, 성정경, 2005) 및 일본의 학습장애 연구 동향(홍정숙, 2005)을 소개하고 있다.

<표 17>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및 해외 사례 분석

구분		관련 문헌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7편)	교사 및 교육관련자들의 인식 (5편)	강대옥, 박재국(2002), 김동일, 이일화(2003), 이원령, 이한우(2004), 이원령(2006), 최진오(2007), 강종구(2008)
	또래의 인식(1편)	박순길, 임정숙, 서경웅(2006)
	대학생의 인식(1편)	이원령(2005)
해외 사례 분석 (5편)	호주의 학습장애 법제화(1편)	정해진(2005)
	미국의 학습장애 판별	양민화, Timothy Landrum(2005), 강옥려, 홍성두, 이기정, 김이내, 김동일(2008)
	독일의 학습장애 교육(1편)	김성애, 성정경(2005)
	일본의 학습장애 교육(1편)	홍정숙(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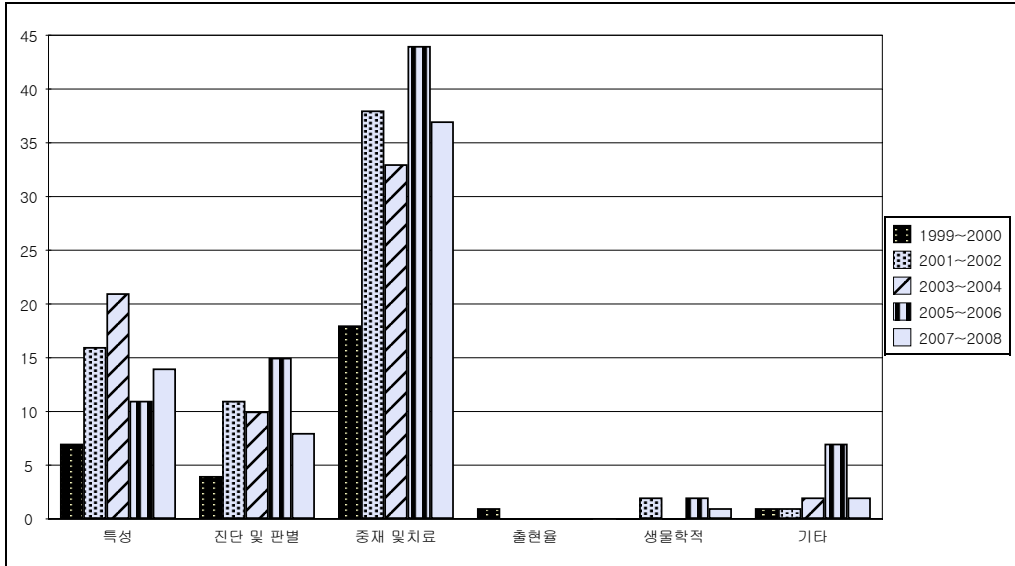
### 5.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습장애 관련 연구 동향 분석

1999년부터 2008년까지 최근 10년 동안의 학습장애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논문을 2년 단위로 나누어 하위 영역별로 수행된 연구 편수를 정리하면 다음 <표 18>, [그림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 동안의 학습장애 연구 문헌들 가운데 연구자들이 설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한 총 289편(중복 체크를 포함하여 총 30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이들 논문은 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연구 69편(22.5%),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관한 연구 48편(15.6%), 학습장애의 증재 및 치료에 관한 연구 170편(55.5%), 학습장애의 출현율에 관한 연구 1편(0.3%), 학습장애의 생물학적 연관에 관한 연구 5편(1.6%), 학습장애에 관한 인식을 포함한

<표 18> 최근 10년 동안의 학습장애 관련 연구 분야

연구분야 연도	특성	진단 및 판별 정의	증재 및 치료 (학습/행동)	출현율 역학	생물학적 연관	기타 (인식)
1999~2000	7(10%)	4(8%)	18(11%)	1(100%)	0(0%)	1(7%)
2001~2002	16(23%)	11(23%)	38(22%)	0(0%)	2(40%)	1(7%)
2003~2004	21(30%)	10(21%)	33(19%)	0(0%)	0(0%)	2(15%)
2005~2006	11(16%)	15(31%)	44(26%)	0(0%)	2(40%)	7(54%)
2007~2008	14(20%)	8(17%)	37(22%)	0(0%)	1(20%)	2(15%)
합계	69(100%)	48(100%)	170(100%)	1(100%)	5(100%)	13(100%)



[그림 1] 최근 10년 동안의 학습장애 관련 연구 동향

기타 사항에 관한 연구 13편(4.2%)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절반이 넘는 170편(55.5%)의 학습장애의 중재 및 치료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99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단위로 나누어 각 연구 분야별 연구동향을 살펴본 결과, 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1999년에서 2000년까지 7편(10%),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6편(23%),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1편(30%),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1편(16%),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4편(20%)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관한 연구가 1999년에서 2000년까지 4편(8%),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1편(23%), 2003년에서 2004년까지 10편(21%), 2005년에서 2006년까지 15편(31%), 2007년에서 2008년까지 8편(17%) 이루어졌으며, 학습장애의 중재 및 치료에 관한 연구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8편(11%), 2001년에서 2002년까지 38편(22%), 2003년에서 2004년까지 33편(19%), 2005년에서 2006년까지 44편(26%), 2007년에서 2008년까지 37편(22%)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장애의 출현율에 관한 연구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의 1편(100%) 만이 나타났고, 학습장애의 생물학적 연관에 관한 연구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 0편(0%), 2001년에서 2002년까지 2편(40%), 2003년에서 2004년까지 0편(0%), 2005년에서 2006년까지 2편(40%),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편(20%)으로 나타났으며,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을 비롯한 기타 사항에 관한 연구는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편(7%), 2001년에서 2002년까지 1편(7%), 2003년에서 2004년까지 2편(15%), 2005년에서 2006년까지 7편(54%), 2007년에서 2008년까지 1편(15%)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된 분석 틀에 의해 학습장애의 하위 영역으로 비언어적 학습장애, 학습장애 공존장애, 학습장애 영역에 대해 수행된 연구를 구분하여 조사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들을 2년 단위로 구분하여 연구 편수를 제시하면 다음 <표 19>와 같다.

비언어적 학습장애(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란 수학, 자기조절 및 사회기술에 문제를 보이는 장애(박현숙, 신현기, 정대영, 정해진 역, Hallahan, Lloyd, Kauffman, Weiss, & Martinez, 2007)로 Rourke와 동료들에 의한 일련의 연구들은(Rourke, 1982, 1987, 1993; Rourke & Conway, 1997; Strang & Rourke, 1983) 비언어적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이 전형적으로 우반구기능과 관련된 결함이 있으나, 비교적 잘 보존된 숙달된 언어적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다. 하지만 이들의 특성과 진단 및 판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며(Cornoldi, Venneri, Marconato, Molin, & Montianari, 2003) 국내의 연구동향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총 289편(중복 체크를 포함하여 총 306편)의 연구 가운데 단 1편의 문헌연구만이 비언어적 학습장애의 특성, 진단 및 판별, 중재 및 치료 영역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다.

한편, 학습장애의 복잡성과 이질성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학습장애의 공존장애(comorbidity)와 교차 영역(cross-categorical, cross-ove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9). 공존장애란 2개 또는 그 이상의 조건들이나 장애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표 19> 최근 10년 간 비언어적 학습장애, 학습장애 공존장애, 학습장애 영재에 관한 연구

		특성	진단·판별 정의	증재·치료 (학습/행동)	출현율·역학	생물학적 연관	기타 (인식)
비언어적 학습장애	1999~2000						
	2001~2002						
	2003~2004						
	2005~2006	1	1	1			
	2007~2008						
	합계	1	1	1			
학습장애 공존장애	1999~2000				1		
	2001~2002	2					
	2003~2004	2	1				
	2005~2006		1				
	2007~2008	1					
	합계	5	2		1		
학습장애 영재	1999~2000						
	2001~2002						
	2003~2004	1	2	2			
	2005~2006	1	1	1			
	2007~2008						
	합계	2	3	3			

(Stedman, 1995), 동일한 장애가 상이하게 표현되는 것이거나 각기 별개의 장애들일 수 있다. 또한 각각이 어떤 취약성을 공유하거나 한 장애가 다른 장애를 유발하거나 두 개의 관련되지 않은 장애가 함께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Gillberg et al., 2004). 본 연구에서 분석한 학습장애 공존장애에 관한 연구는 총 289편(중복 체크를 포함하여 총 306편) 가운데 8편이 나타났고, 2000년에 수행된 출현율·역학 실태 연구부터 이후의 특성과 진단·판별 및 정의 등의 몇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져오고 있지만 그 수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영재성과 학습장애의 두 가지 다른 속성이 동시에 나타나며, 여러 가지 특수교육 영역에 걸쳐 있는 경우를 교차 영역이라고 지칭한다(김동일, 1999). 특히, 기초학습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 영재아동을 학습장애 영재(gifted learning disability)라고 한다. 학습장애 영재에 관한 최근 국내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총 289편(중복 체크를 포함하여 총 306편)의 논문 가운데 5편의 논문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2003년 이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성, 진단·판별 및 정의, 그리고 증재·치료에 대해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들 중 실험논문 109편에 대해 연구대상의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 <표 20>과 같았다.

&lt;표 20&gt; 연구대상의 연령별 구분

	유아	초등	중등
합계	1(0.9%)	91(80.5%)	21(18.6%)

이 중 4편은 초등과 중등을 모두 연구대상으로 다루고 있어 중복 체크하였다. 109편(중복 체크를 포함하여 113편) 중 압도적으로 많은 수가 초등 학습장애 학생들에 관하여 다루고 있었고(80.5%), 중등 학습장애 학생들에 관한 연구가 그 뒤를 이었다(18.6%). 그러나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단 1편(0.9%)에 그쳤다.

#### IV. 논의

최근 10여 년간 이루어진 학습장애의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 본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학습장애와 읽기장애의 특성, 특히 인지적 특성에 편중되어 이루어져왔다. 이는 학습장애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특성에 관한 탐색에 대한 요구와 읽기장애가 학습장애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장애라는 점, 그리고 학습장애가 학습과 관련한 장애임에 따라 그 인지적 특성에 대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되었음에 따른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노력을 통하여 학습장애와 읽기장애의 인지적 특성의 다양한 측면들이 상당 부분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 및 그 특성에 관한 연구가 제안된다.

먼저 학습장애와 읽기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그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신경심리적 특성 그리고 생물학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가 비교적 적게 이루어졌음에 주목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을 통하여 학습장애가 갖는 이질성이 드러남에 따라서, 그 이질성의 요소들을 밝히기 위한 관련 연구들이 필요하겠다.

또한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 쓰기학습장애와 수학학습장애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폭넓은 연구가 기대된다. 지금까지의 연구 가운데 쓰기장애와 수학학습장애에 관한 연구는 모두 합하여 전체 분석 논문 가운데 4%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매우 제한적인 분야에 한하여 미미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서 쓰기장애 및 수학학습장애의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과 그에 따른 다양한 주제에 관한 연구들이 요구된다.

한편 학습장애에서 나타나는 특성 가운데 학습장애 공존장애와 학습장애 영재의 특성에 관한 연구 또한 주요한 연구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러한 장애집단들에 관한

연구가 최근 10년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향후 학습장애와 동반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정서 및 행동 문제 혹은 기타 질환과 같은 학습장애 공존장애와 학습장애 영재에서 나타나는 제특성과 관련한 다방면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학습장애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는 주로 현재의 학습장애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동향은 학습장애의 이질성으로 인하여 그 정의 및 판별에 있어 일치되지 못한 논의를 반영하는 동시에,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학습장애에서 나타나는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해결책으로서의 대안에 관한 연구들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읽기장애, 쓰기장애, 수학학습장애, 학습장애의 공존장애, 학습장애 영재와 같은 학습장애의 하위 영역 및 양상에 있어서의 정의와 진단 및 판별에 관한 연구들이 전체 분석 대상 논문 가운데 약 4% 미만의 수준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앞으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기대된다.

셋째, 학습장애와 관련하여 중재 영역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으나 세부 영역별로 편중되어 있고, 개별 중재에 대해 반복 연구가 부족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재 연구는 대부분이 학습 관련 중재에 관하여 이루어지고 있었고, 학습 영역에서도 점차 수학 영역에 관한 연구가 증가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읽기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따라서 향후 행동 영역을 비롯하여 학습 영역에서 수학 및 쓰기에 관한 연구가 좀 더 이루어지고, 반복 연구를 통해 각 중재의 효과를 검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중재 연구들의 연구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 '학습장애'라고 분류되어 중재가 적용되고 있는 바, 연구 대상이 어떤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술하는 등 중재 적용의 조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이 밖에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습장애와 관련한 연구들로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및 해외의 학습장애와 관련한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전체 분석 논문 가운데 약 2%인 총 7편으로 그 수에 있어 매우 적었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학습장애가 교육 현장에서 높은 출현율을 가진 장애 영역이며, 학습장애로 인하여 교육 실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부분의 연구들이 교사 혹은 교사에 준하는 대상에 한하여 이루어졌다. 하지만 교육현장에서 학습장애 학생이 부딪히는 어려움이 비단 교수-학습 상황이나 교사와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습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문제 등에도 관련한 문제점들이 동반될 수 있음에 주목하여 앞으로는 보다 다양한 대상에 걸쳐 다양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해외의 학습장애와 관련한 사례에 대한 연구는 전체 분석 논문 가운데 약 1.7%에 해당

하는 5편에 그쳤다. 해외의 사례에 관한 연구들은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차원에서 학습장애의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시도로서 의의를 가짐에 따라, 앞으로 보다 다양한 국가의 학습장애와 관련한 사례 연구들이 요구되며 아울러 이러한 해외의 사례를 어떻게 국내의 학습장애 관련 현황 및 연구 동향과 관련지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문헌들을 2년 단위로 나누어 하위 영역별로 수행된 연구 편수를 정리해 보았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학습장애와 관련한 연구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0년대 초반까지 학습장애의 특성, 정의와 진단 및 판별, 중재 및 치료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록 여전히 학습장애의 이러한 측면들에 관련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며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200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그 경향이 점차 완만한 하향세를 보임과 동시에 생물학적 연관성이나 학습장애에 관한 인식 및 해외의 학습장애 관련 사례 연구 등 기타의 측면에 대한 관심이 차츰 생겨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국내외 학계의 관심이 학습장애의 다양한 하위 유형을 비롯하여 그 다양한 측면에 대한 탐색을 모색하고자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특히 최근 학습장애의 병태생리학적 기전을 밝히기 위한 시도로서 생물학적 연구를 통해 그 핵심 원인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주제들이 학습장애 관련 연구의 주요 분야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다양한 연구를 통한 두드러진 연구 성과가 제기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학습장애가 일차적으로 학습에서 문제를 나타냄에 초점을 두고서 교육 장면에서 교사 등이 갖는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관하여 탐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학습장애와 관련한 이슈들을 해결하고 개선해나가고자 해외 유수의 사례에 대한 검토해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향후 보다 폭넓은 연구적 노력을 통하여 보다 학습장애와 관련한 연구의 지평을 확대해나갈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습장애 하위 영역으로 비언어적 학습장애, 학습장애 공존장애, 그리고 학습장애 영재를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최근 학습장애의 하위 유형으로 언어능력에는 강점을 보이나 공간지각능력, 운동능력, 사회성 기술과 같은 비언어적 능력에서 결함을 보이는 비언어적 학습장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석 결과 1편의 문헌연구만이 비언어적 학습장애에 관하여 다루고 있어 향후 이 분야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학습장애 공존장애와 관련하여서도 8편만이 수행되었고, 주로 특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었다. 학습장애 공존장애 분야에의 최근 국내외 연구동향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의 수 그 이상의 함의를 말해준다. 최근 국외에서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이 학습장애의 공존장애, 특히 ADHD와 의 공존장애에 따른 양상에 주목하고 있으며(Mayers, Calhoun, & Crowell, 2000; Jakobson &

Kikas, 2007; Forness & Kavale, 2001; Forness, Kavale, Sweeney, & Crenshaw, 1999, Karande, Satam, Kulkami, Sholapurwala, Chitre, & Shah, 2007), 국내에서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ADHD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에 관한 논의가 학술대회에서 다루어졌고(과학한림원 심포지엄, 2008.5.30), 관련 연구들 또한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는 점(김동일 외, 2008; 김용희 외, 2002; 이경희 외, 2003; 이종범 외, 2002)을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주로 공존장애의 특성에 국한하여 이루어졌음은 오히려 향후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질 충분한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학습장애 영재에 관한 연구도 마찬가지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나 외국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학습장애 영재에 관하여 학습장애 영재의 정의(Baum, Owen, & Dixon, 1991; Brody, & Mills, 1997; Cindy, 2001, Gunderson, Maesch, & Rees, 1987), 특성(Gordon, Lewandowski, & Keiser, 1999; Lisa, 2001; Taylo, 1984) 등에 대하여 끊임없이 다루어오고 있는 바, 이 분야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선정된 논문 중 실험논문에 대해 연구대상의 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대부분이 초등 학습장애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고, 유아에 대한 연구는 단 1편에 그쳤다. 최근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변화를 대표하는 움직임이 장애아동의 조기진단 및 처치를 중심으로 한 유아특수교육의 확대이다(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9). 심각한 학습문제를 경험하게 될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면, 학습장애 아동이 경험하게 될 학습과 관련된 장애문제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학습장애는 성인기에도 지속될 수 있는 장애(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이므로, 유아를 비롯하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축적된 학습장애의 특성, 정의와 진단 및 판별, 중재 및 치료, 그리고 기타의 측면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학습장애에 관한 보다 다층적이며 다차원적 관점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들을 통해 국내 학습장애 연구가 보다 탄탄한 체계와 내용을 갖추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종구, 최성규, 허명진 (2007). 읽기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도전략. 언어치료연구, 16(4), 125-142.
- 강위영, 정대영 (2001). 학습장애아동교육. 서울: 형설출판사.
- 김길순 (2008a). 음운인식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음운인식 및 단어재인과 철자쓰기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일 (1999). 학습부진 영재아동. 서울: 원미사.
- 김동일 (2002). 초등학생 글쓰기 능력 진단과 지도를 위한 쓰기 평가와 쓰기 오류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3(1), 43-62.
- 김동일 (2008). 기초학습기능 수행평가체제(BASA): 읽기검사. 서울: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김동일, 김이내, 이기정, 정소라, 김봉년, 고은영 (2008).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와 학습장애의 공존장애(comorbidity): 현황과 연구전망. 아시아교육연구, 9(4), 111-147.
- 김동일, 이기정, 김이내 (2008). 학습장애 학생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진단·판별 모형 개발. 2008년 한국학습장애학회 추계학술대회.
- 김동일, 이대식, 신종호 (2009).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학지사.
- 김동일, 홍성두, 이기정 (2008). 교사판단 기반 학습장애 위험군의 핵심요인 탐색과 모형평가. 열린교육연구, 16(3), 19-35.
- 김애화 (2006). 학습장애학생을 위한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2), 265-299.
- 김용희, 신민섭, 조수철 (2002). 주의력결핍·과잉운동장애와 학습장애 아동의 기억 기능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3(1), 85-92.
- 김윤옥(2001). 학습장애아 교육. 최중옥(편), 특수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교육과학사.
- 박현숙, 신현기, 정대영, 정해진 역(2007). 학습장애: 토대, 특성, 효과적 교수. 시그마프레스.
- Hallahan, D. P., Lloyd, J. W., Kauffman, J. M., Weiss, M. P., & Martinez, E. A. (2007). *Learning Disabilities: Foundations, Characteristics, and Effective Teaching (3rd ed.)*. Pearson Education
- 손상희(2003a). 통합된 학습장애아동의 귀인양식이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9(1), 157-178.
- 손상희(2003b). 학습장애 아동의 낙관성향이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 한국특수교육문제연구소,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3), 109-135.



- 신중호 (1999). 학습장애 집단과 집단간의 읽기 차이에 대한 시계열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34(2), 277-295.
- 이경희, 신민섭, 김봉년, 조수철 (2003). 읽기 장애와 주의력 결핍 과잉 운동 장애아동의 주의력 과제와 음소 변별 과제 수행 비교: 청각 과제를 중심으로.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2), 197-208.
- 이대식 (2001). 학습장애 진단과 판별: 불일치 기준의 문제점과 교과별 기초학습기능의 역할. *정서·학습장애연구*, 17(2), 19-41.
- 이원령 (2007).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명명속도와 유창성 중재방법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6(2), 35-57.
- 이종범, 박순재, 정성덕, 김진성, 서완석, 배대석 (2002). 학습장애를 동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임상적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8(2), 271-281.
- 정대영 (2005). 학습장애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고찰. *학습장애연구*, 2(2), 1-29.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uthor.
- Baum, S. M., Owen, S. V., & Dixon, J. (1991). *To be gifted & learning disabled*. Mansfield Center, CT: Creative Learning Press.
- Brody, L. E., & Mills, C. J. (1997). Gifted children with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0, 282-296.
- Bursuck, W. D., & Epstein, M. H. (1987). Current research topics in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0(1), 2-7.
- Chard, D. J., & Dickson, S. V. (1999). Phonological awareness: Instructional and assessment guidelines. *Intervention in School and Clinic*, 34(5), 261-170.
- Cindy, L. (2001). A closer look at gifted children with disabilities. *Gifted Child Today*, 24(3), 46-54.
- Cornoldi, C., Venneri, A., Marconato, F., Molin, A., & Montianari, C. (2003). A Rapid Screening Measure for the Identification of Visuospatial Learning Disability in School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6(4), 299-306.
- Dowker, A. (2005). Early identification and intervention for students with mathematics difficul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4), 324-332.
- Falik, L. H. (1995). Family patterns of reaction to a child with a learning disability: a medi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8, 335-341.
- Fink (1998). *Conducting research literature reviews: From paper to internet*. Sage publication,

Inc.

- Flanagna, D. P., Ortiz, S. O., Alfonso, V. C., & Mascolo, J. T. (2002). The achievement test desk reference(ATDR): *Comprehensive assessment and learning disabilities*. Boston: Allyn & Bacon.
- Forness, S. R., & Kavale, K. A. (2001). ADHD and a return to the medical model of special education. *Education and Treatment of Children, 24*, 224-247.
- Forness, S. R., Kavale, K. A., Sweeney, D. P., & Crenshaw, T. M. (1999). The future of research and practice in behavioral disorders: Psychopharmacology and its school treatment implications. *Behavioral Disorders, 24*, 305-318.
- Gillberg, C., Gillberg, I. C., Rasmussen, P., Kadesjö, B., Söderström, H., Rastam, M., Johnson, M., Rothenberger, A., & Niklasson, L. (2004). Co-existing disorders in ADHD – implications for diagnosis and intervention. *Eur Child Adolesc Psychiatry, 13*(1), 80-92.
- Gordon, M., Lewandowski, L., & Keiser, S. (1999). The LD label for relatively well-functioning students: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2*, 485-490.
- Gunderson, C. W., Maesch, C., & Rees, J. W. (1987). The gifted/learning disabled student. *Gifted Child Quarterly, 31*(4), 158-160.
- Hallahan, D. P., Kauffman, J. M., & Lloyd, J. W. (1999). *Introduction to learning disabilities*. Needham Heights, Massachusetts: Allyn & Bacon.
- Hinshaw, S. P., (1992).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and academic under-achieve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ausal relationships and underlying mechanisms. *Psychol Bull, 111*, 127-155.
- Jakobson, A. & Kikas, E. (2007). Cognitive Functioning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Attention-Deficit/Hyperactivity Disorder With and Without Comorbid Learning disabilitie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40*(3), 194-202.
- Karande, S., Satam, N., Kulkarni, M., Sholapurwala, R., Chitre, A., & Shah, N. (2007). Clinical and psychoeducational profile of children with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and co-occurring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Indian Journal of Medical Sciences, 61*, 639-647.
- Kavale, K. A., & Forness, S. R. (2000). What definitions of learning disability say and don't say: A critical analysi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3*, 239-256.
- Kavale, K.A. (2005). Identifying specific learning disability: Is responsiveness to intervention the answer?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8*(6), 553-562.
- Kirk, S. A. (1962). *Educational exceptional children*. Boston: Houghton Mifflin.

- Lerner, J. W. (2003). *Learning disabilities: Theories, diagnosis, and teaching strategies (9th ed.)*. New York: Houghton Mifflin Co.
- Lisa, B. (2001). Understanding learning disabilities. *Educational Leadership*, 59(3), 96.
- Mayers, S. D., Calhoun, S. L., & Crowell, E. W. (2000). Learning disabilities and ADHD: Overlapping spectrum disorders.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3, 417-424.
- McNamara, P. J. (2007) *Learning Disabilities: Bridging the gap between research and classroom practice*. Pearson Education
- Myers, P. I., & Hammill, D. D. (1990). *Learning disabilities: Basic concepts, assessment practices and instructional strategy (4th ed.)*. Austin TX: PRO-ED.
- Pierangelo, R., & Giuliani, G. (2006). *Learning disabilities: A practical approach to foundations, assessment, diagnosis, and teaching*. Pearson Education, Inc.
- Riccio, C. A., Gonzalez, J. J., Hynd, G. W., (1994),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ADHD) and learning disabilities, *Learning Disability Quarterly*, 17, 311-322.
- Rourke B. (1982). Central processing deficiencies in children: Toward a developmental neuropsychological model. *Journal of Clinical Neuropsychology*, 4(11), 1-18.
- Rourke B. (1987). Syndrome of 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 The final common pathway of white-matter disease/dysfunction? *The Clinical Neuropsychologist*, 1, 209-234.
- Rourke B. (1993). Arithmetic disabilities, specific and otherwise: A neuropsych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6, 214-226.
- Rourke, B., & Conway, J. (1997). Disabilities of arithmetic and mathematical reasoning: Perspectives from neurology and neuropsychology.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0, 34-36.
- Siegel, L. S.(1999) Issues in the definition and diagnosis of learning disabilities: A perspective on Guckenberger v. Boston university.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32(4), 304-319.
- Shaywitz, B. A., Shaywitz, S. E., Blachman, B. A., Pugh, K. R., Fulbright, R. K., Skudlarski, P., et al. (2004). Development of left occipito-temporal systems for skilled reader in children after a phonologically-based intervention. *Biological Psychiatry*, 55, 926-33.
- Stedman, T. L. (1995). *Stedman's Medical Dictionary (26th ed.)*. Baltimore: Williams & Wilkins.
- Strang, J., & Rourke, B. (1983). Concept-formation/nonverbal reasoning abilities in children who exhibit specific academic problems with arithmetic.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2(1), 33-39.
- Taylor, C. A. (1984). *Utilization of Guilford's structure of intellect model in developing*

*differential diagnosis of learning disabled gifted through profil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Florida.

- Torgesen, J. K. (2002). Empirical and theoretical support for direct diagnosis of learning disabilities by assessment of intrinsic processing weaknesses. In R. Bradley, L. Danielson, & D. Hallahan (Eds.), *Identifica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to practice* (pp. 565-650). Mahwah, NJ: Erlbaum.
- Torgesen, J. K. & Burgess, S. R. (1998). Consistency of reading related phonological process throughout early childhood: Evidence from longitudinal correlation and instructional studies. In J.L. Metsala & L.C. Ehri (Eds.), *Word recognition in beginning literacy* (pp. 161-188). London: Erlbaum.

#### <부록> 분석문헌

- 강대옥, 박재국 (2002). 학습장애에 대한 예비보육교사의 인식. 특수아동교육연구, 4(2), 77-98.
- 강영수, 김윤옥 (2002). 시험전략이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4(2), 39-54.
- 강옥려 (2002). 학습장애 아동과 학습부진 아동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관한 고찰. 정서·행동장애연구, 18(3), 133-150.
- 강옥려, 고승희 (2005). 인지-메타인지전략 훈련이 학습장애아동의 수학기초 문제해결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3), 135-154.
- 강옥려, 홍성두, 이기정, 김이내, 김동일 (2008). 미국의 학습장애 진단 및 판별절차에 관한 고찰. 학습장애연구. 5(2), 107-133.
- 강정숙, 김희규 (2004).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말하기,쓰기 활동을 통한 응집구조 및 자기발화수정 능력 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6(2), 75-96.
- 강종구 (2008).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바라보는 학습장애에 대한 생각에 관한 질적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4(3). 241-255.
- 강종구, 최성규, 허명진 (2007). 읽기장애 아동들을 위한 지도전략. 언어치료연구, 16(4), 125-142.
- 고혜정 (2003). 학습장애 아동의 조기판별 예측요인과 방법. 특수아동교육연구, 5(1), 209-226.
- 고혜정, 박현숙 (2005). 이야기문법 자기평가 교수전략이 초등 쓰기장애 학생의 쓰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0(1), 281-303.
- 국미경, 곽행숙 (1999). 문장제 수학기초 문제 해결력 향상을 위한 표상학습전략의 효과. 정서·학습장애연구, 15(1), 77-92.
- 국미경, 최유순 (2001). 자기교시훈련이 수학학습장애아의 사칙연산능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 영향. 정서·학습장애연구, 17(2), 71-92.
- 권성호, 심영경 (2004). 웹 기반 학습에서 개요제시방식이 학습장애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5(1), 145-170.
- 권요한, 정소남 (2001). 또래지도를 통한 일반학급 경도장애아동의 읽기 지도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5(4), 25-48.
- 권주석 (2005). 생활 관련 읽기소재에 대한 사전경험이 읽기장애아동의 읽기 유창성과 읽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0(2), 313-331.
- 김경숙, 신진숙 (2008). 체육과 또래교수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성 및 학교생활 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0(2), 227-245.
- 김고운, 안성우, 서유경 (2007).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이야기 구성능력 비교.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4), 655-677.
- 김길순 (2008a). 음운인식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음운인식 및 단어재인과 철자쓰기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길순 (2008b). 학습장애아를 위한 음운인식 지도 방안. 학습장애연구, 5(2), 85-105.
- 김동일 (2002). 초등학생 쓰기 능력 진단과 지도를 위한 쓰기 평가와 쓰기 오류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3(1), 43-62.
- 김동일, 이일화 (2003).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인식하는 학습장애 요인 : 명시적 지식과 묵시적 지식을 중심으로. 열린교육연구, 11(1), 63-79.
- 김동일, 이태수 (2005). 직접교수와 진단도 모니터링이 수학학습부진 및 수학학습 장애아동의 기초 연산능력 및 발달 패턴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0(3), 171-189.
- 김동일, 정광조 (2008). 불일치모형과 중재반응모형을 넘어서 : 학습장애의 진단을 위한 새로운 통합 모형의 제안을 중심으로. 정서·행동장애연구, 24(1), 133-161.
- 김동일, 최종근 (2004). 학습장애 조기선별을 위한 읽기 전 능력검사의 현황과 개발 방향. 교육학연구, 42(3), 275-299.
- 김동일, 홍성두 (2005). 학습장애의 진단을 위한 불일치 판별모델 : 개관과 전망. 아시아교육연구, 6(3), 209-237.
- 김동일, 홍성두 (2006). 회귀불일치 모델과 국가규준 저성취 모델에 의한 학습장애 진단 일관성 비교. 아시아교육연구, 7(2), 91-113.
- 김동일, 홍성두 (2008). 학습장애 진단에 있어서 교사의 임상적 판단의 특성 분석. 학습장애연구, 5(2), 43-59.
- 김동일, 홍성두, 이기정 (2008). 교사판단 기반 학습장애 위험군의 핵심요인 탐색과 모형평가. 열린교육연구, 16(3), 19-35.

- 김라경, 박승희 (2002). 협력교수가 일반학생과 학습장애학생의 사회과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5(2), 19-45.
- 김미경, 서경희 (2003a).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처리 능력 특성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4(4), 241-258.
- 김미경, 서경희 (2003c). 읽기장애 아동의 단어 재인 설명 변인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2(2), 93-109.
- 김미경, 안성우 (2005). 읽기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지 과정 특성과 읽기와의 관계 연구. *특수아동 교육연구*, 7(2), 187-202.
- 김미경, 안성우, 정운기 (2005). 읽기를 설명하는 인지과정요인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3), 393-405.
- 김미경, 윤치연, 안성우 (2003). 한글 읽기장애 아동의 음운인식 능력과 명명속도 결손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치료연구*, 12(2), 241-254.
- 김성만 (2008). 수학 학습장애아의 작동기억 및 수학적 능력 : 두 자리 수의 덧셈과 뺄셈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한국교원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애, 성정경 (2005). 독일의 학습장애아 교육. *학습장애연구*, 2(2), 55-81.
- 김성화, 강병주, 최정미, 변찬석 (2006). 가르기-모으기 놀이가 수학 학습장애 아동의 가감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2(3), 349-369.
- 김소영, 이근매 (2001). 언어지도를 병행한 미술치료 프로그램을 통한 학습장애아동의 부적응행동 사례연구. *미술치료연구*, 8(2), 197-214.
- 김소희 (2004). 학습장애 학생의 수학 문장제 해결능력 향상에 관한 연구: 세 가지 학습전략의 효과 비교. *학습장애연구*, 1(1), 63-93.
- 김소희 (2008). 학습장애 위험군 학생을 위한 수학 문장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일반학급 교사들의 인식 및 사용 현황.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2), 387-404.
- 김수진 (2003). 학습장애를 보이는 청각장애 아동의 사례 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19(2), 199-210.
- 김수진 (2006). 청각처리장애와 언어학습장애 혹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의 중복에 대한 비평. *특수아동교육연구*, 8(1), 41-58.
- 김수향 (2005). 자기교수법을 병행한 미술치료가 학습장애아동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2(3), 567-586.
- 김순영, 문영호 (2003). 자기교시훈련이 수학학습장애아의 나눗셈 연산학습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449-479.
- 김애화 (2004).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읽기이해 중심의 컴퓨터 보조 교수의 효과. *학습장애연구*,

- 1(1), 95-114.
- 김애화 (2006a). 수학 학습장애 위험학생 조기선별검사 개발: 교육과정중심측정 원리를 반영한 수감각검사. 특수교육학연구, 40(4), 103-133.
- 김애화 (2006b). 학습장애학생을 위한 중재연구에 관한 문헌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2), 265-299.
- 김애화, 신현기, 이준석, 황민아, 한경근, 박 현 (2008). 학습장애 위험학생 선별검사 개발 및 표준화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13(2), 282-307.
- 김애화, 신현기, 한경근, 황민아, 이준석, 박 현 (2006). 학습장애 위험학생 선별검사 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결과 : 문항내적합치도와 내용타당도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41(3), 351-384.
- 김애화, 이동명 (2005). 학습장애 선별 및 진단에 관한 문헌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0(3), 191-230.
- 김영본, 조정연 (2007). 동화읽기 프로그램이 학습장애 학생의 언어표현력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 연구, 16(4), 161-180.
- 김영한 (2002). 의미 중심적 쓰기 지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쓰기 장애아의 의미표현적 쓰기와 관습적 쓰기에 미치는 영향. 정인지체연구, 4, 215-232.
- 김용욱, 우정환, 이성환, 안정애 (2008). 수학 영역에 있어 중재반응모델의 중재 요소에 대한 고찰.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1), 279-302.
- 김윤옥 (2004). The Effects of a Remedial Sentence Writing Strategy for Secondary School Levels of Korean Students without and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the States. 언어치료 연구, 13(2), 49-74.
- 김윤옥 (2006). 학습장애 판별을 위한 중재반응모형(RTI)의 이상과 함정. 특수교육학연구, 41(3), 141-161.
- 김윤옥 (2008). 학습장애 선별검사를 통한 초등학교 학습부진, 학습장애, 정인지체 학생 등에 대한 차이 검증. 초등교육연구, 21(1), 51-73.
- 김윤옥, 봉원용 (2004). 학습장애의 학문적 정의와 초등학교 특수교사들의 학습장애 진단 실제 간의 괴리. 특수교육학연구, 39(2), 85-103.
- 김의정, 최혜승, 장대준 (2006). 연구기반 읽기교수가 학습장애아동의 읽기유창성 및 읽기이해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연구, 13(2), 247-274.
- 김이선, 김윤옥 (2003). 학습장애가 있는 아동과 없는 아동의 귀인성향과 학교생활적응. 특수아동교육연구, 5(1), 45-65.
- 김자경 (2001b). 학습장애의 판별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찰 : 학습장애 정의에 따른 관련논문분석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6(1), 101-126.

- 김자경 (2002b). Relationship between behavioral and emotional functioning and social status among students with LD. *정서·학습장애연구*, 18(1), 37-61.
- 김자경 (2005). 초등학교 학습장애 판별 준거에 관한 논의: 불일치 준거와 대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7(4), 257-278.
- 김자경, 김기주 (2005). 수학학습장애아동과 수학학습부진아동의 암산 능력과 전략 비교.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4), 93-108.
- 김자경, 정남용, 김기주, 임은영 (2007). 수학학습장애 아동의 연산 전략 발달 연구 : 생활연령과 수학능력을 일치시킨 집단과의 단순 덧셈, 뺄셈 전략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42(2), 57-68.
- 김정은, 김자경, 정세영 (2008). 일반아동과 학습장애, 지적장애아동의 인지과정 특성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10(4), 213-229.
- 김주경, 김자경, 강혜진, 서주영 (2006). 다중지능을 활용한 교수가 학습장애아동의 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4), 301-324.
- 김하경, 최득남 (2003). 동료수용·이해훈련 프로그램이 학습장애아의 이타적 행동 및 사회적 책임감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4(2), 109-132.
- 김형일 (2002). 학습장애아의 사회적 행동 특성 분석을 통한 교육적 중재의 시사점 고찰. *정서·학습장애연구*, 18(3), 113-131.
- 김희규, 강정숙 (2005). 언어학습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의 말하기·쓰기에 나타난 이야기 문법 및 응집구조 비교. *특수교육학연구*, 39(4), 43-60.
- 류숙렬 (2002).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기 경도장애 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류숙렬 (2003). 자기결정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 전이기 경도장애학생의 자기결정력 증진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8(1), 161-181.
- 문태형 (1999). 정서 학습장애 아동 진단 준거로서의 한국 웨슬러 유아지능검사의 제 3 요인 출현 가능성 탐색. *정서·학습장애연구*, 15(2), 51-66.
- 문태형 (2003). 학습장애영재아동의 판별과 교육적 중재. *정서·학습장애연구*, 19(4), 265-281.
- 민혜정, 김윤옥 (2002). 교과서 독해내용 정리 전략이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사회과 학업성취도와 메타인지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4(1), 163-183.
- 박경혜, 최성규 (2005). 동화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언어지도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4(3), 91-111.
- 박소은, 김영태 (2003). 일반 아동과 학습장애 아동의 결속표지에 대한 자기발화수정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8(2), 15-36.
- 박수진, 이춘재, 광금주 (2002). K-WISC-III에 나타난 읽기장애아의 인지 특성. *한국심리학회지*,



- 14(4), 37-54.
- 박승환, 장영건 (2007). 색 오버레이를 사용한 시각적 정보처리 결함을 갖는 난독증 학습장애 선별.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4), 313-336.
- 박용수, 채희태 (2005). The Effects of Inclusion on the Self-Esteem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6(1), 315-330.
- 박현숙 (1999b). 읽기장애의 오류유형 분석을 통한 비공식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3(2), 20-39.
- 박현숙, 조운경 (2004). 학습장애 학생 지원체계에 관한 질적 분석 : 관련 교사들과의 면담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9(1), 121-142.
- 박현숙, 조운경 (2005). 일반학급내 학습장애와 학습부진 아동을 위한 교육적 지원 현황 : 초등 일반교사의 판단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10(1), 116-133.
- 방명애, 최하영 (2003). 초등 경도장애아동을 위한 자기결정기술 프로그램의 적용효과에 대한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인식비교. 특수교육연구, 10(2), 99-122.
- 배성미, 박현숙 (2002). '협동적 쓰기' 교수가 초등 작문장애 학생의 쓰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7(2), 225-247.
- 변찬석 (2002). 학습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사정평가 이용 연구. 정서·학습장애연구, 17(3), 257-275.
- 변찬석, 이성환 (2006). 학습장애아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탐색과 의의.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4), 493-515.
- 서우경 (2005). 미성취 영재아의 학업성취 관련 변인에 대한 메타분석. 숙명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전성, 박현숙 (2000). 상보적 교수가 읽기 이해력과 읽기 전략 사용 능력에 미치는 효과:초등 저학년 읽기장애 학생을 중심으로. 언어청각장애연구, 5(1), 55-76.
- 선우현 (2007). 학습장애 아동의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 향상을 위한 가족놀이치료의 효과성 사례연구. 아동교육, 16(1), 201-211.
- 손상희 (2003b). 학습 장애아동의 낙관성향이 학습의욕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4(3), 109-135.
- 송동호, 류영민 (2004). 일차진료의사가 알아야 할 학습장애. 가정의학회지, 25(91), 643-652.
- 송찬원 (2008). 학습장애아동과 ADHD아동 및 일반아동의 실행기능 특성.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찬원, 김하경, 장희대 (2008). 일반학생과 읽기, 쓰기 학습장애학생의 신경심리적 실행기능 특성 비교. 특수아동교육연구, 10(2), 247-266.

- 신성웅 (2001). 읽기 장애 환자와 주의력 결핍·과잉운동장애 환자의 신속 이름대기 장애.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2), 282-284.
- 신성웅, 김봉수, 성덕규, 정영, 유희정, 조수철 (2001). 학습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남학생의 자아상 개념과 우울-불안 특성 조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125-137.
- 신성웅, 조수철 (2001). 쓰기 장애 환자와 정상 초등학교 학생의 쓰기 특성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2(1), 51-70.
- 신성웅, 조수철, 이정범 (2003). 발달성 읽기 장애 진단을 위한 단어-비단어 읽기 검사와 글자기호감 별검사의 표준화 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1), 81-93.
- 신중호 (2002). 학습장애아동 조기 선별을 위한 인지판단 그림검사의 타당도 연구. *교육학연구*, 40(1), 159-176.
- 신진숙, 김진희 (2005). 워드프로세서와 웹 메일을 이용한 쓰기 훈련이 쓰기 학습장애 아동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7(1), 291-310.
- 심정와, 박현숙 (2000). 워드 프로세싱 프로그램에 의한 쓰기표현 교수가 초등 고학년 쓰기장애 학생의 쓰기표현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5(2), 190-210.
- 안성우 (2005). 읽기 장애 아동의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PREP와 음운 인식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비교. *언어치료연구*, 14(1), 105-125.
- 안성우, 김학진, 신미성, 서유경, 박진영, 박원경 (2008). 일반 아동과 한글 읽기 장애 아동의 단어 읽기 과제시 뇌활성화 영역 비교 :fMRI를 활용한 사례 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2), 405-421.
- 안정애 (2006). 국내 읽기학습장애 연구의 진단방법 분석.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1), 311-329.
- 양민화, Timothy Landrum (2005). 미국의 학습장애 판별과정과 교육. *학습장애연구*, 2(2), 103-121.
- 여광응, 이점조 (2001). PASS읽기향상 프로그램에 의한 훈련이 읽기장애아동의 동시적·연속적 처리기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2(3), 111-132.
- 우정환, 김영걸, 신재훈 (2007). 초등학교 수학학습장애 학생의 연산 오류 특성.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3), 575-596.
- 원호택, 신민섭, 송종용 (2000). 작업기억과 해부호화 기술이 한글 읽기장애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19(4), 771-792.
- 윤송이, 강옥려 (2008). 자기조정전략 교수가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9(3), 129-150.
- 이대식 (2000). 학습장애 아동들의 대인관계 기술 부족에 관한 기존 연구 동향과 쟁점 : 학습장애아를 위한 상담활동에 주는 시사점. *청소년상담연구*, 8(1), 122-145.

- 이대식 (2001). 학습장애 진단과 판별 : 불일치 기준의 문제점과 교과별 기초학습기능의 역할. 정서·행동장애연구, 17(2), 19-41.
- 이대식, 장수방 (2002). 수학 학습부진아 및 학습장애아 교육 관점에서 분석한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수학 교과서의 적합성. 특수교육연구, 9(1), 201-219.
- 이대식, 최종근, 전윤희, 김연진 (2007). 수학 기초학습부진학생 집단의 특징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8(1) 93-130.
- 이병혁 (2005). 수학부진아동들의 수학수업 효율화를 위한 담화형태 적용과정 연구 : 구성주의에 근거한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단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병화, 이경숙, 윤수진 (2002). 무시난독증에서의 가로읽기와 세로읽기의 차이 - 증례 연구. 대한신경과학회지, 20(1), 15-26.
- 이신동 (2006). 학습장애 영재의 유형과 판별 전략 탐색. 학습장애연구, 3(1), 77-94.
- 이원령 (2002b). 학습장애아동의 음운인식과 명명속도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1(2), 155-170.
- 이원령 (2005b). 동시 읽기활동을 통한 학습장애아동의 읽기 명명속도, 정확도 및 읽기오류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1(4), 257-278.
- 이원령 (2006). 통합교육을 위한 일반교사들의 '학습장애'에 대한 인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5(3). 21-39.
- 이원령, 이한우 (2004). 학습장애 원인·진단·지도·특성 이해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4). 407-425.
- 이유리, 노주선, 김근향, 김지혜 (2000). 학습 장애 진단을 위한 학습 성취도 검사의 개발 연구 1 - 쓰기 검사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69-80.
- 이윤미, 김애화 (2008). 수감각 발달을 위한 조기 수학 교수가 수학 학습장애 위험학생의 수개념과 연산능력에 미치는 효과 연구. 초등교육연구, 21(3), 287-312.
- 이재승 (1999). 역동적 평가가 수학학습장애학생의 수학추리기능과 동기에 미치는 효과. 전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점조, 여광웅 (2002). PREP에 의한 훈련이 읽기장애아동의 동시적·연속적 처리기능과 단어읽기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37(1), 395-418.
- 이종범, 박순재, 정성덕, 김진성, 서완석, 배대석 (2002). 학습장애를 동반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임상적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8(2), 271-281.
- 이지영, 김정미 (2006). 단어재인과 읽기이해의 혼합 중재가 초등학교 읽기장애 아동의 비단어 읽기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11(3), 64-81.
- 이태수 (2006). 수학학습장애아동의 연산능력 발달특성 분석,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태수 (2007). 반복 읽기(RCR)와 SQ3R 독해전략이 읽기장애아동의 읽기유창성과 읽기이해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1(4), 133-147.
- 이태수 (2008). 학습장애아동의 수학 문장제 문제해결능력의 발달경향성 탐색 및 학급배치효과 분석. 특수교육연구, 15(1), 173-191.
- 이태수, 김동일 (2006). 또래 중재가 읽기장애아동 및 또래교사의 읽기유창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3), 121-135.
- 이태수, 유재연 (2006). 의미구조에 따른 표상기법이 수학학습부진 및 수학학습장애아동의 문장제 문제 해결능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7(2). 1-21.
- 이태수, 최종근 (2005). 중재반응 모델에 근거한 수학 학습장애 학생의 연산능력 발달패턴 탐색 및 분석. 특수교육연구, 12(2), 331-351.
- 이태수, 홍성두 (2007). 문장제 문제에 대한 일반아동과 저성취아동 및 수학학습장애아동의 중재반응 특성 비교 분석. 정서·행동장애연구, 23(1). 187-210 .
- 이한규 (2002). 읽기 오류 분석을 통한 읽기장애아들의 언어처리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4(1), 1-19.
- 이혜숙, 박현숙(1999). 읽기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의 음운처리과정 및 읽기재인간 비교 연구. 언어청각장애연구, 4, 79-102.
- 이효신(2002). 삽화를 이용한 대체사고전략이 학습장애아동의 읽기와 쓰기 능력에 미친 효과 및 오류 분석. 언어치료연구, 11(2), 23-39.
- 임남순, 김윤옥 (2006). 초등학교 학습장애 아동 및 학습부진 아동에 대한 문장작성전략의 중재 효과. 학습장애연구, 3(2), 29 -47.
- 임소인, 신현기 (2005). 경도장애 학생을 위한 문제중심학습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9(4), 1-23.
- 장대식, 안성우, 정운기, 최은영, 김미경 (2005). PREP의 연속적처리훈련이 초등학교 읽기장애 아동의 단어읽기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1(2), 111-130.
- 장영건 (2005). 정보기술과 난독증 학습장애. 정보화정책, 12(2), 106-122.
- 장은진, 강민아, 정철호 (2001). 정신지체와 학습장애에 대한 일차적 변별도구로서 한국 아동 인성검사의 유용성 연구. 생물치료정신의학, 7(2), 261-267.
- 장진국, 문교식 (2004). 초등학교 학습장애 학생의 수 개념 향상을 위한 웹 코스웨어 개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8(2), 141-153.
- 전선영, 신민섭, 조수철, 김봉년 (2003).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K-ABC와 K-LDES의 진단적 타당도.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4(2), 209-217.
- 전영례, 안성우, 김미경 (2003). 초등학교 수학 학습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간의 연산 오류 유형

- 비교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5(1), 191-208.
- 정광조, 김동일 (2007). 직접교수(DI) 원리를 적용한 한글읽기프로그램이 초등 특수학급 읽기장애 학생들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8(1), 169-196.
- 정대영 (2002). 학습장애의 개념 및 진단평가의 문제와 과제. 정서·학습장애연구, 18(1), 63-87.
- 정대영 (2005). 학습장애의 개념과 분류에 대한 고찰. 학습장애연구, 2(2), 1-29.
- 정대영, 이수자 (2007). 과정 중심의 읽기 훈련이 읽기 학습장애아동의 독해력, 읽기 상위인지 및 읽기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4(1), 1-24.
- 정대영, 최미숙 (2007). 심상그리기를 활용한 과정중심 글쓰기가 쓰기학습장애 아동의 어휘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9(1), 333-352.
- 정재권, 오정근 (2003). 도덕과 협동학습 프로그램이 학습장애학생의 학습태도 및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4(1), 95-114.
- 정정희 (1999). 초기개입 프로그램 경험이 학습장애 가능성이 있는 아동의 비행식적 수학 사고기능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4(1), 257-276.
- 정해진 (2005). 학습장애 법제화 방안: 호주 사례. 학습장애연구, 2(2), 83-101.
- 정혜란, 박현숙 (2007). 자기감독 중재를 이용한 읽기지도가 초등학교 저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수업중 과제수행행동 및 읽기성취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12(2), 334-358.
- 정혜승, 김소희 (2008). 국내 쓰기 학습장애아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학연구, 42(4), 169-191.
- 조용태 (2000). 정신지체아동과 학습장애아동의 사회적 기술 특성 비교. 미래유아교육학회지, 7(1), 113-136.
- 조정숙, 김진희 (2008). 수정된 SQ3R 독해전략 훈련이 읽기장애 아동의 독해력 및 읽기인식력에 미치는 영향. 특수아동교육연구, 10(3), 101-118.
- 조주현 (2008). 균형적 문해 프로그램이 읽기장애 위험아동의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연 (1999b). 학습장애 학생의 작업기억 용량과 독해전략 교수법간의 상호작용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병연 (1999c). 학습장애 학생의 작업기억 용량에 따른 독해전략 교수법의 인지적 효과 비교. 교육심리연구, 13(4), 201-225.
- 최성규, 강영남 (2003). 연결어휘를 이용한 창작동화가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력 신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3), 217-232.
- 최성규, 남상직(2004). 마인드 맵 학습 전략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1), 341-367.

- 최성규, 송재웅 (2003). ICT의 수준별 적용이 학습장애아동의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9(4), 425-447 .
- 최성규, 조영옥 (2004). 동화를 활용한 연극놀이 활동이 학습장애아동의 어휘력에 미치는 효과. 놀이치료연구, 8(2), 115-127.
- 최세민 (2006). 전략훈련과 설명적 교수가 학습장애 학생의 수학기초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된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장애연구, 3(1), 95-116.
- 최세민, 신정남 (2005). 핵심어법 교수전략이 학습장애학생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효과. 아시아교육연구, 6(2), 185-203.
- 최승숙 (2004). 학습장애 등 경도장애학생 통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내 협력교수의 실제: 모형과 전략의 함의.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3), 323-352.
- 최은영 (1999). 동시촉구가 발달상 학습장애아의 대상명명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은영, 박제현 (2005). 가족미술치료가 어머니의 훈육태도와 학습장애아동 및 일반형제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21(3), 341-362.
- 최정미 (2008). PREP에 의한 인지과정 훈련이 학습장애아의 읽기기능에 미치는 효과. 학습장애연구, 5(2), 135-164.
- 최정미, 강병주, 김성화, 변찬석 (2007). PREP의 교량적과제 수정이 읽기장애 위험 유아의 읽기기능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8(4), 389-407.
- 최정미, 김성화, 강병주, 변찬석 (2006). 경험이야기 받아쓰기 중재가 학습장애아의 읽기, 쓰기 능력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153-174.
- 최진오 (2007). 수학학습장애아 통합교육에 대한 일반학급교사의 인식조사연구. 초등교육연구, 20(3), 37-57.
- 추은정, 박중규, 윤화영, 이영호 (2007). 사례연구 : 초등1학년 읽기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읽기, 사회성 결합훈련의 효과. 놀이치료연구, 11(1), 77-87.
- 한경임, 전희 (2002). 멀티미디어 학습 프로그램이 학습 장애 아동의 읽기와 쓰기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18(2), 47-71.
- 허승준 (2002a). 멀티미디어 정착수업이 경도장애 및 비장애 고등학생의 비판적 질문능력에 미치는 효과. 교육공학연구, 18(2), 223-248.
- 허승준 (2005). 학습장애의 진단 및 평가: 기존 모델의 문제점과 시사점. 학습장애연구, 2(2), 31-53.
- 허승준, 정종희 (2004). 이야기 재연 전략 훈련이 학습장애 아동의 읽기 이해력과 유창성 향상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1), 369-387.
- 허유성 (2008). 중학교 읽기 통합수업에서 PBL 기반의 정착적 교수법이 읽기 학습장애 및 일반

- 학생의 학업성취도와 교수 - 학습 활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학연구, 43(1), 145-165.
- 허유성, 최지영 (2008). 중학교 읽기 통합수업에서 학습장애 및 일반학생의 학습동기 비교. 특수아동 교육연구, 10(3), 215-236.
- 홍정숙 (2005). 일본 학습장애아교육의 동향-일본 문부과학성 정책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학습장애 연구, 2(2), 123-143.
- 황리리, 박현숙 (2004). 이야기 도식화 전략 교수가 초등 고학년 읽기장애 학생의 읽기 및 듣기 이해력에 미치는 효과. 언어청각장애연구, 9(2), 156-170.
- 황세경, 이근매, 조용태 (2004). 개별미술치료가 학습장애 아동의 문제행동 개선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1(3), 413-426.

\* 논문접수 2009년 5월 2일 / 1차 심사 2009년 5월 17일 / 2차 심사 2009년 6월 17일 / 게재승인 2009년 6월 26일

\* 김동일: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및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미국 미네소타 대학교 교육심리학과에서 학습장애 전공으로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BK21 역량기반 교육혁신 연구사업단 참여교수로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학습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특수아동상담」, 「ADHD 학교상담」 등이 있다.

\* e-mail: dikimedu@snu.ac.kr

\* 고은영: 가톨릭 대학교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상담 및 임상심리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 e-mail: eykoh@snu.ac.kr

\* 정소라: 동국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 e-mail: sora501217@snu.ac.kr

\* 이유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 e-mail: everydayuse@naver.com

\* 이기정: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특수교육전공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교육종합연구원 특수교육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 e-mail: sarline1@snu.ac.kr

\* 박중규: 연세대 심리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서울대병원 신경정신과, 연세의대 정신과, 인제의대 신경정신과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대구대 재활심리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걱정 많고 불안한 아이, 어떻게 도와줄까」, 「스트레스 제대로 다스리기」 등의 역사와 「아동의 외현적 행동문제 개선을 위한 인지행동적 부모훈련의 효과」 등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 e-mail: pjkpsy@daegu.ac.kr

\* 김이내: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초등특수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특수교육전공 대학원에 재학 중이다.

\* e-mail: irene0141@snu.ac.kr



## Abstract

## Learning Disabilities in Korea: A Synthesis of Researches from 1999 to 2008\*

Dongil Kim\*\* · Eunyoung Koh\*\*\* · Sora Jeong\*\*\* · Yuri Lee\*\*\*  
Kijyung Lee\*\*\* · Joongkyu Park\*\*\*\* · Ienai 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out the recent trends of researches in Korea by synthesizing findings of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in order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directions. 289 studies published between 1999 and 2008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studies on characteristics of learning disabilities have been mostly conducted in conjunction with reading disabilities, specially focusing on cognitive characteristics of reading disabilities. Second, studies on definition, diagnosis and identifica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point out problems of these areas and propose the alternatives.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ajority of research on learning disabilities in Korea has been dedica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n intervention on students with learning disabilities. However, studies on intervention of learning disabilities have been conducted under a biased towards specific area, and showed the lack of replication studies on each intervention. Fourth, additionally there were studies on awareness on learning disabilities and foreign case studies. As the results, while studies on characteristic, definition, diagnosis/identification, intervention/treatment of learning disabilities until early 2000's were mainly conducted, it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in late 2000's and interests on the biological and other aspects start to increase. It was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s for research toward nonverbal learning disabilities, comorbidity of learning disabilities, and the gifted learning disabilities.

Key words: Learning Disabilities, Research Synthesis, Intervention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Science and Engineering Foundation(KOSE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MEST)(No. R01-2008-000-20528-0)

\*\* Professor, Department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Graduate School Student,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peci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Daegu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irene0141@snu.ac.kr),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peci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